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미국 유학생 감소, 브레이크가 없다

2010년 이래 첫 7만명 이하로 하락, 감소세 계속 미국 학생 비자발급 강화, 취업비자발급 강화 요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년대비 5488명이 줄어 67,326명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한인 유학생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내 한인 유학생들은 2018년 3월 기준 마이민세관단속국(USICE)이 웹사이트에



미국내 한인 유학생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내 한인 유학생들은 2018년 3월 기준 전년대비 5488명이 줄어 67,326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5년 BU 강연 모습=보스톤코리아 자료 파일

4월 30일자로 발표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3월 자료에 따르면 한인 유학생 수는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급격한 감소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내 전체 유학생 수 감소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미 예고됐던 것이었다. 3월 11일 월 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까지 1년간 미 국무부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F-1 학생비자 39만3천573건을 발급했다. 이는 2년 전보다는 4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학생 비자발급심사 강화와 더불어 트럼프 정권은 취업비자인 H-1B의 발급규정 강화 그리고 취업 영주권 발급까지 강력하게 제한하면서 유학생 선택에서 미국을 제외토록 만들고 있다.

2018년 3월 미국내 전체 유학생(F, M, J 비자 소지자)은 120만1,829명으로 지난해 120만 8,039명보다 0.5%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중에도 중국 학생은 ▶▶6면으로 계속



덴고 연방하원의원 후보 기금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시민협회가 주축이 된 대니얼 고선거자금 후원의 밤 행사가 노스앤도버 소재 박영찬씨 자택에서 5월 16일 수요일 밤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 호스트위원회 위원인 이경혜(508-962-2689), 김성군(617-799-7033)씨에게 문의할 수 있다. 행사는 리셉션을 시작으로 다과와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연방하원의원 매사추세츠 제3지구출마 해 9월 4일 민주당 후보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Weekly Special
보스톤 출발-인천행
왕복항공권 최저가
\$1070~
상당문의
IACE TRAVEL
(617) 424-8956
(866) 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품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ENGEL & VÖLKERS

주책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단체장들 남북정상회담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보았다"

보스턴 단체장들 "남북정상회담"에 대체로 환영 답변
대다수 단체장들은 의견제시보다는 침묵으로 답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 지역의 한인 단체장들은 4.27남북정상회담의 감격을 고스란히 표현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놓진 않았다.

보스턴코리아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30일 이메일을 통해 보스턴 지역 주요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반응을 문의했다. 윤미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지역협의회 회장은 "드디어 '나의 조국, 한반도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고 답했다.

장수인 필하모니아 보스턴오케스트라 단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점을... 남북 두정상이 손잡고 넘나드는 모습에 진짜 놀랐다." 고 말하고 "지나간 70여년, '세계속의 한국' 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하면서 그러나 한켠 많이도 슬펐던 한반도가 덧없이 떠올라 목이 메인다." 고 밝혔다.

이경해 시민협회장도 "눈물이 나올 정도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내 생

전에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내 머리속에 스쳐갔다" 며 너무도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만해도 늘 전쟁 임박설을 염두에 두고 올림픽 개최의 성공여부까지 우려해야 했었다.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평창올림픽 직전까지도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접하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 남북회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새삼 상기시켰다.

보스턴옥타경제인협회 장진섭 회장은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상반된 이해가 충돌하는 복잡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와 통일 문제를 우리가 선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 역사적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며 이번 회담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보스턴 지역 단체장들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감동과는 별개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김병국 보스턴한미

예술협회 회장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의 해석이 땅과 하늘 차이라서 쉽지 않을 것이고,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에 이은 남북한 통일은 어쩌면 분단 70년에 맞먹는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고 한번에 쉽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장수인 단장은 "오래된 희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기대와 기원, 염려가 엇갈리며 꿈을 꾸어본다." 며 조심스런 희망을 이야기 했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이 시작이 앞으로 갈 길도 멀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오직 앞으로 전진하고, 남, 북한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마다 이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 시작이 프로파간다 (propaganda) 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북한에 대한 조심스런 반응도 보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반응을 살피는데 있어 상당수의 단체장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답변을 한 단체장도 '정치적' 인 문제이기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평소 보수적인 견해를 견지하던 단체장들은 침묵으로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editor@bostonkorea.com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단체장들의 반응

윤미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지역협의회 회장)



드디어 "나의 조국, 한반도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이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들이 있었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가시적인 성과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본인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의 북한정권과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짧은 시간에 바꾸어 놓았고, 남한과 북한에서 공동선언에 뒤따르는 남북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협력의 여러 조치들이 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 긴장완화와 상호협력 사업은 물론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긍정적인 결과에 달려 있으나, 이것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정부의 중재적인 지원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좋은 성과를 남기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도록 우리 재외동포들도 미국사회에서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미국사회에 알리는데 참여하고, 조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기뻐하며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경해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WOW!! 드디어, 정말, 4월 27일에 실제로 일어났!!



두 지도자께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나란히 빨간 카펫트를 걸어가 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단체장들의 반응

▶▶2면에 이어서

다!! 눈물이 나올 정도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내 생전에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내 머리속에 스쳐갔다!

이 시작이 앞으로 갈 길도 멀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오직 앞으로 전진하고 남, 북한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마다 이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독과 서독도 통일이후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양쪽 다 안정된 상태에 도달했다고 들었다.

이 시작이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은 현재 별 선택할 위치에 있지않다.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이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최대의 결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다.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평창 올림픽 직전까지도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접하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남측을 향해 걸어내려오는 모습과, 남북 정상이 활짝 웃으며 두 손을 맞잡고 남북경계선까지도 넘었다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아직 확실하긴 않지만 훨씬 희망찬 마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불씨가 되어 남북관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장수인 (필라모니아 보스톤 오케스트라 단장)

판문점 군사분계점을 남북 두정상이 손잡고 웃으며 왔다 갔다 넘나드는 모습에 진짜 놀랐다.

지나간 70여년, '세계속의 한국' 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하면서 그러나 한편 많이도 슬펐던 한반도가 덧없이 떠올라 목이 메인다. 오래된 희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기대와 기원, 염려가 엇갈리며 꿈을 꾸어본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된다니 스무살에 고향 영변을 떠나 93세가 되신 우리아버지가 눈시울 붉히신다.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꿈꾸며 가져온 수많은 평화콘서트와 한반도 콘서트, 한마음콘서트가 세계평화를 향해 향한다.

김병국 (보스톤한미예술협회 회장)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은 남북 교류, 연말까지 휴전이 아닌 정전 협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등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말에 북미대담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의 해석이 땅과 하늘 차이래서 쉽지 않을 것이고,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에 이은 남북한 통일은 어쩌면 분단 70에 맞먹는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긴 발걸음의 첫 행보로 반갑게 악수하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적어도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터뜨리기를 바란다.



2018 재외동포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외교부는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보스톤 지역 후보자 추천을 15일 화요일까지 받는다.

포상 대상은 동포사회 발전과 대한민국 국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사로 재외국민, 미국국적의 동포 또는 외국인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또한 단체도 추천 가능하다. 추천을 원하는 한인들은 보스톤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기사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해 공적조서를 작성해 보스톤 총영사관에 우송해야 한다.

단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형사처분을 받은 자(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등),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에 대한 추천은 제한한다.

외교부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자 포상을 위해 2016년부터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공관 추천을 통해 외교부는 8월 경 공개검증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포상 종류는 국민훈장(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이다. 훈장은 15년 이상 공적, 포장은 10년 이상 공적 그리고 표창은 5년 이상 공적이 있을 때 수상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계 치과의사이자 두 아이(6, 3세)의 엄마인 지은씨(35)가 절실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두아이의 엄마 지은씨를 도와주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한국계 치과의사이자 두 아이(6, 3세)의 엄마인 지은씨(35)가 절실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은씨는 올해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Acute Myeloid Leukemia/AML) 을 선고 받아 투병중이다. 이 백혈병은 골수 및 혈액의 암이며, 백혈병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희귀한 질병이다.

항암화학요법만으로 치료를 한다면 99% 재발성 위험이 있어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한다. 치료 없이 평균 수명은 진단 후 약 8개월, 약 4개월 후에

는 항암화학요법이 더이상 효과가 없어 이식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한번 치료받을때마다 1개월이 걸리며 지은씨는 현재 두번째의 치료를 받고 있다. 골수 이식은 유전적 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일 민족 또는 아시아계에서 골수를 기증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증자들은 유럽인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기증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은씨는 현재 한국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돕기 위해서는, 골수 이식 기부자 등록 기관인 [https://join.bethematch-](https://join.bethematch.org/fl)

[h.org/fl](https://join.bethematch.org/fl) 에 가입해 검사기구(면봉)를 받아 타액을 채취해 발송하면 된다. 44세 이하는 무료지만 45세 이상은 등록 비용이 \$100이다.

혈액줄기세포가 일치되는 경우 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수술 없이 혈액을 통해 말초혈액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기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골수 기증 후 합병증은 없으며 1주일 이내에 백혈구가 회복된다.

일단 등록되는 경우 지은씨가 아니라도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스톤 산악회 제9차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올해 9번째 정기산행을 뉴햄프셔 소재 웰치마운틴 및 디키롭워터빌렐리(약 2700ft)로 5월 5일 떠난다.

산행 거리는 4.5마일이며 난이도는 3.0으로 보통이다. 산행시간은 약 3시간 30분 가량이다.

산행 당일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착용, 아이젠, 스패츠,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및 간편중식이다.

집결지는 93번도로 뉴햄프셔 2번 출구 파크앤라이드(PARK&RIDE)이며 오전 8시까지 모여야 한다. 회비는 20불이다.

신청마감은 5월 3일이다. 신청은 김혁신(617-780-9588)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보경 Bokyung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환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환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क्स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Mother's day 스페셜

행사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바쁜
엄마에게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

Event 1

3+1

화애락본 / 화애락진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Event 3

천녹정 / 천녹톤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Event 4

홍삼톤 골드 / 홍천웅 구입시,
천녹정 **30g 무료증정**

홍이장군, 아이페이스 구입시
아이키커 (사과맛) **2박스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세월호 유가족 보스톤 방문 간담회 가져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예배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7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스톤을 방문해 5월 11일 워터타운 소재 그레이스 비전연합감리교회에서 간담회 및 추모예배를 갖는다.

뉴잉글랜드연회내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에 걸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나머지 1시간은 추모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진상과 진상 조사위 구성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스톤을 방문하는 세월호 유가족 7명은 유해종(미지아빠) 이재복(수연이아빠) 박요섭(시찬이아빠) 김병준(민정아빠) 김춘자(동수엄마) 여중은(민수엄마) 김명임(수빈엄마) 씨다.

유가족들은 한국에서 곧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될 "416희망목공방"을 위해 뉴욕 지역의 브루더호프 커뮤니티(Bruderhof Community)를 견학한다. 브루더호프는 물건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기독교 공동체다. 유가족들은 이 방문길인 5월 11일(금)과 12일(토) 양일간, 1박2일의 일정으로 보스톤을 들

예정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측은 "유가족분들을 직접 뵙고 여러 말씀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는 유가족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들이 이역만리 미국 땅에도 있음을 알려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4년이나 지났건만 제대로된 진상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

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행사 일정 안내
1.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간담회: 5월 11일(금) 저녁 7시 - 8시
2.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예배: 5월 11일(금) 저녁 8시 - 9시
3. 장 소 :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노인회 회원 및 어른들 초청 점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성요한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한미노인회회원을 비롯한 해당 교회 노인 어른들에게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식사를 대접한다. 사회봉사부, 여선교 및 친교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 성요한교회 조상연 목사의 설교도 예정되어 있다. 한미노인회 윤철호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사랑에 효를 나누시는 성요한교회 임원진께 감사드립니다" 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번 성요한교회 어버이날 행사에 차편이 필요한 노인회원들은 반드시 5월 7일 월요일까지 이영애 총무(978-807-1622)에게 예약해야 한다. 차편은 북부보스톤감리교회에서 10:30분에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노인회는 16일 수요일 셋째 주 사랑방모임을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에서 갖는다. 9시부터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며 9시 30분부터, 난타, 라인댄스, 카톡방 셋팅, 요강강의, 점심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4월4일 노인회원들이 올스톤 소재 서울설령당에서 도가니탕과 설령탕 점심을 대접받는 모습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콩코드 도서관에서 열리는 한국 가정의 달 행사. 사진 위 왼쪽부터 유용가 박찬희 씨, 피아니스트 윤정선 씨, 소프라노 우상원 씨. 아래는 한국관련 소품들

콩코드 도서관 한국 가정의 달 기념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행사가 보스톤의 북서쪽에 위치한 콩코드(Concord, MA) 타운에서 5월 12일 토요일 진행된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콩코드 도서관 동우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오후에는 다식 만들기, 서예, 제기 만들기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저녁 시간에는 한국 음악과 무용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에는 보스톤 심포니 합창단원인 소프라노 우상원씨와 피아니스트 윤정선씨가 한국 가곡을 연주하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보유자인 오정희씨가 산조와 병창을 들려준다. 또한 무용가 박찬희씨가 제자들과 함께 부채춤과 삼고무를 공연한다.

행사 및 공연 관람은 무료이나 제

한된 좌석으로 인해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콩코드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소품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에게 보여질 예정이다.

콩코드 도서관의 직원이며 행사 기획자 중 한 명인 유상효씨는 “지난 2015년에 처음 이 행사를 개최했을 때 미국 분들의 호응이 뜨거워서 놀랐었다.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한국과 관련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예술협회와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도서관 내 전시를 위해 많이 수고하신 허선희 작가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행사 내용〉

2018 한국 가정의 달 기념 행사(Korean Family Month Celebration 2018)
일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장소: Concord Free Public Li-

brary (129 Main St. Concord, MA)
어린이 프로그램

오후 1시 -3시, 도서관 내 Children's room

다식 만들기, 서예, 제기 만들기
한국 음악과 무용 공연

오후 6시부터 스낵과 음료 제공. 공연은 7시부터. 도서관 로비

한국 가곡, 가야금 산조, 부채춤, 가야금 병창, 삼고무

입장료: 무료이나 사전 등록 필요.
www.concordlibrary.org에서 이벤트 캘린더로 들어간 후, 해당 날짜와 이벤트를 찾아 등록.

주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후원: 콩코드 도서관 동우회 (The Friends of the Concord Free Public Library)

bostonkorean@hotmail.com

국제선 연례 기금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이 해버힐 소재 디버로스 평션 홀에서 5월19일 토요일 6시에 개최된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매년 5월이면 모금만찬을 통해 모든 기금으로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김인숙 회장은 “먼 이국땅에 오셔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웃사랑을 마음판에 새겨서

연중행사로 하는 모금만찬을 위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도 만찬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개인당 \$60이다. 문의는 김인숙 회장 (978-828-1383)에게 할 수 있다.

장소: DiBurro's Function Facility, 887 Boston Road Haverhill, MA 01835

연락처: 978-828-1383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국제선 기금 만찬 모습

미국 유학생 감소, 브레이크가 없다

▶▶1면에 이어서

377,0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05명 늘었으며 인도출신은 211,703명으로 2,356명 늘었다. 한국은 이들과 현격한 격차로 3위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17%가 감소한 사우디아라비아가 4위를 차지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미국내 유학생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주

순으로 유학지를 선택했다. 매사추세츠주는 4위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학별 유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은 NYU로 16,960명이 재학중이며, 두번째는 USC로 14,644명이 재학중이다. 보스톤 소재 노스이스턴 대학으로 14,248명으로 2위를 바짝 추격했다.

hsb@bostonkorea.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댄고후보가 첫 TV광고를 4월 30일 시작했다

댄고 연방하원 후보 첫 TV 광고 방영 시작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댄고후보가 첫 TV광고를 4월 30일 시작했다.

댄고 후보는 ‘스탠드위드유 (Stand with you)’ 라는 제목의 30초 짜리 TV 광고에서 가족의 이민 역사를 설명함으로써 광고를 시작한다. 댄고 후보는 로렌스의 거리에서 “미국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때 나의 할아버지는 이 거리에서 자라났다”고 말한다.

한국계 아빠와 레바논계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기가 마틴 월시 시장의 비서실장이 되고 지금은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이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을 때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란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댄고 후보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전주민의료보험을 실현하며 일자리 창출, 교육에 집중해 모든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광고를 통해 강조했다.

댄고 후보는 한편 29일 일요일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민자 출신의 후보임을 어필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내 조부모들이 미국에 입

국하려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였다면 아마 입국을 불허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미국을 원하는가? 이민자들을 축출하는 미국을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던 포용하는 미국을 원하는가.” 라고 말했다.

댄고 후보는 이민문제는 물론 미국의 노조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13명의 민주당 후보중 가장 많은 노조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는 또 2018년 1사분기까지 총 2백 50만불의 선거자금을 모금해 타 후보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댄고 연방하원의원 후보 기금모금 만찬

▶▶1면에 이어서

들과 경선을 치른다. 현임 니키 송가스의원(민주당)의 은퇴로 공식이 된 하원의원직에는 그를 비롯 1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댄고 후보는 1/4분기까지 2백50만불의 선거자금을 모아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히 앞선 모금액을 자랑한다. 고 후보는 또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4월 30일부터 첫 TV광고를 방영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댄고 후보는 고경주 전 보건부 차관보와 레바논계 의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 학부와 하버드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허핑턴포스트의 제너럴매니저로 근무했

다. 출마전까지는 마티월시 보스톤시장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댄고는 친근한 미소와 허물없는 인간관계로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소유했다.

선거 자금 기부는 \$200 이상일 경우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과 고용주의 이름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표가 아닌 개인수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사일시: 5월 16일 (수)

6:30PM ~ 8:30PM

주소: 410 GREAT POND Rd. NORTH ANDOVER MA

hsb@bostonkorea.com



시민협회가 주축이 된 대니얼 고 선거자금 후원회 밤 행사가 노스앤도버 소재 박영찬씨 자택에서 5월 16일 수요일 밤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재미한인장학기금 6월20일까지 지원자 접수

2017년 보다 장학생 규모 소폭 늘려 49명 내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미대사관은 2017년 재미한인장학기금 대상자를 49명 내외로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주미대사관은 기금 이자율하락에 따라 선발규모를 2014년도부터 40명 내외로 축소했으며 2017는 43명을 선발했다.

정규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중인 한국계 대학(원)생으로 부모중 한 사람이 한국계인 동포학생, 입양된 동포학생, 유학생으로서 직전 1년간 GPA 3.0이상인 사람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이 시행하는 재미한인장학기금(The Korean Honor Scholarship)의 2018년도 장학생 선

발규모는 49명 내외로서 미국 43명 내외, 캐나다 6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캐나다 지역 장학생은 주캐나다한국대사관에서 공고.심사.선발.장학금 지급 등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 지역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포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생 41명 내외, 예능계(음악·미술) 장학생 2명, 특별장학생(장애학생 등)은 6명으로 확대됐다.

장학생 선발자 중 학업성적과 재능이 특출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우수 장학생 2명 내외를 선발해 2,5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 에세이상 수상자 4명에게는 500달러씩의 부상을 수여하는 방안으로 장학금 규모와 수상자 수를 조정

한다.

장학생 심사는 GPA, 추천서, 에세이, 이력서(입상실적, 특별활동, 리더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원서 및 모집요강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 교육정보에서 재미한인장학기금 검색)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반 장학생은 6월 20일까지 보스톤 총영사관으로 신청하면 되며 예능예, 입양인, 장애인은 대사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주보스톤총영사관 김범준 실무관(bjkim12@mofa.go.kr)에게 할 수 있다.

한편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출연한 100만 달러 등 총 290만 달러의 기금투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08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국악인 오정희씨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며, 현재 뉴욕, 뉴저지, 뉴잉글랜드지역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RI 한인회 가야금 레슨 오픈하우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악인 오정희씨가 '가야금 레슨'에 관한 소개행사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문화관에서 5월 5일 토요일 오후 개최한다.

오정희씨가 주관하는 가야금 레슨은 로드아일랜드한인회가 지난해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받은 가야금 3대를 사용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계획한 것이다.

국악인 오정희씨는 무형 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며, 현재 뉴욕, 뉴저지, 뉴잉글랜드지역에서 제자들을 양성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정희씨는 '가야금 레슨 오픈 하우스'에 여러분을 초대하여 가야금 레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각종 궁금한 점에 답변드린다. 관심이 있는 분들과 자녀분들, 이웃들, 외국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행사에 관한 문의는 한인회 이메일로 (info@rikorean.org) 할 수 있다.

시간 : 5월 5일 (토) 오후 2-4시
장소 : RI 한인회관/문화관,
1140 Park Ave., Cranston, RI
bostonkorean@hotmail.com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4월2일부터 두달 간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초, 중고등부) 글짓기 작품도 공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은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성인부분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 글짓기부분이 진행되며, 총 상금규모는 3,530만원이다.

올해는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이민사 관련 기록문학을 활성화하고자 '체험수기'를 공

모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20주년을 맞은 재외동포문학상이 타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말과 정서를 지키고,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 사용의 동기 부여를 위해 1999년부터 재외동포문학상을 시행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 **\$34⁹⁹**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전상품 무약정

• 월료를 지원하는 월간도 한수씩

• 다양한 수급에 소용돌

• 월간도 비용으로 한도 지출이 가능

• 국내선 장기입사 및 장기 공

• 월간도 및 인터넷 서비스

• 월간도 및 인터넷 서비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해피돌상

고급적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정제된 공예품 전통상대, 소중한 내 아가씨에게 한국의 미를 선물하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게!

• 월간도 및 인터넷 서비스

• 월간도 및 인터넷 서비스

• 월간도 및 인터넷 서비스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태플릿으로도 쉽게 보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코리아닷컴 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다. 보스톤코리아는 4월 초부터 새로운 보스톤코리아 웹페이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보스톤코리아 웹페이지는 스마트폰 및 태플릿 등에서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전후 변형 모델을 선택했다.

바탕화면에 저장하세요.

보스톤코리아를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중 하나는 바탕화면에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열어보는 것이다. 바탕화면 저장을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 또는 태플릿 브라우저(아이폰은 사파리, 삼성등 안드로이드폰은 크롬)를 통해 보스톤코리아 웹페이지를 열어야 한다.

아이폰의 경우 밑에 깔린 저장 표시를 클릭해서 가장 밑 복사하기 프린트 등의 버튼

이 나오는 부분을 왼쪽으로 밀면 홈화면에 추가(Add Home screen) 버튼이 나온다. 이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보스톤코리아 앱 아이콘이 저장된다. (사진 참조) 이후 이 앱을 누르면 보스톤코리아로 바로 갈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오른쪽 상단의 저장 표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타나며 여기서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하면 바로 보스톤코리아 앱 아이콘이 저장된다. (사진 참조) 읽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클릭하는 경우 모든 기사는 스마트폰, 태플릿, 그리고 데스크탑 등 독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최적화 화면으로 적용된다. 과거 데스크탑 최적화 웹사이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려면 화면을 키워야 했지만 지금은 원클릭으로 기사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기사를 읽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경우 하우스 아이콘의 홈화면으로 가기를 누르면 첫번째 페이지로 돌아간다.

바로 찍어서 올리세요.

사고팔고, 룸메이트, 서블렛 등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에도 스마트폰 보스톤코리아 페이지를 열고 보스톤코리아 로고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표시를 클릭해 원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 후 쓰기를 클릭한다. 글 편집기가 나오면 글을 쓰고 타이틀 사진 바로 옆 파일선택(Choose file)을 누르면 카메라가 뜬다. 사진을 찍고 사용을 선택하면 사진이 올라간다.

《여러장의 사진 한꺼번에 올리기》

단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 편집기의 그림 아이콘을 이용해야 한다. 아이콘을 누르면 이미지삽입 화면이 뜬다. 여기서 파일추가를 선택하면 찍을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묻는다.

사진 찍기를 선택하면 카메라가 나온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다시 찍을 것인지 묻고 사진 사용을 선택하면 다시 이미지 삽입 화면으로 간다. 이때 반드시 업로드시작을 눌러야 한다. 사진이 업로드

되면 이미지 편집기가 나온다. 이곳에서 입력하기를 누르면 사진이 게시판에 올라간다. 글 편집기에서 글을 추가로 쓰거나 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원하는 게시물을 올리게 된다.

지면보기도 편합니다.

굳이 종이신문을 픽업하지 않고도 신문지면을 스마트폰, 태플릿, 데스크탑 컴퓨터 등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보스톤코리아 로고 바로 왼쪽 밑 메뉴를 클릭한 후 지면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다른 방법은 홈화면에서 밑으로 스크롤 다운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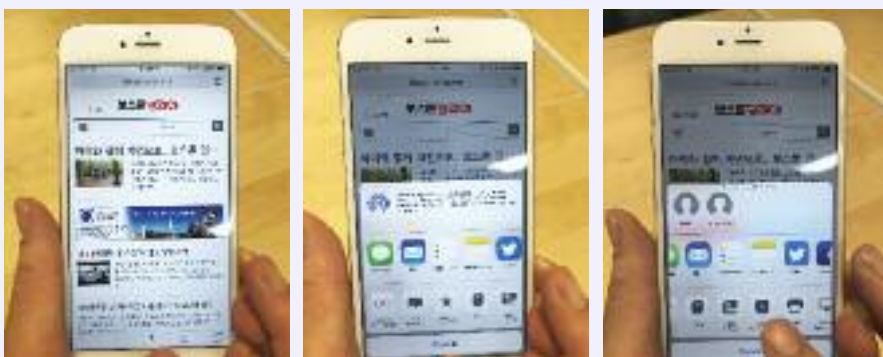
더 간편해진 주요 메뉴

보스톤코리아 웹페이지는 뉴스, 커뮤니티, 한인업소, 유학, 보스톤생활정보, 지면보기, 그리고 보스톤 여행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보스톤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보스톤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스톤코리아 페이지를 통해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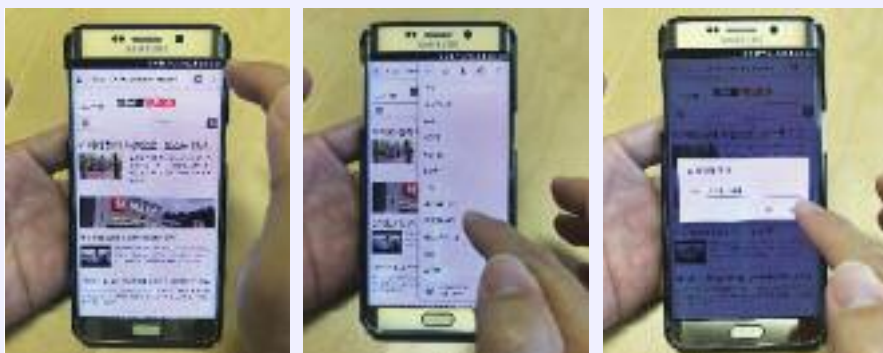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언제든지 독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용시 불편한 점 또는 편리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editor@bostonkorea.com으로 연락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아이폰의 경우 밑에 깔린 저장 표시를 클릭해서 가장 밑 복사하기 프린트 등의 버튼이 나오는 부분을 왼쪽으로 밀면 홈화면에 추가(Add Home screen) 버튼이 나온다. 이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보스톤코리아 앱 아이콘이 저장된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오른쪽 상단의 저장 표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타나며 여기서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하면 바로 보스톤코리아 앱 아이콘이 저장된다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아마존, 보스턴 확장 계획 구체화

43만 스퀘어 피트 건물, 2천개 일자리 주로 하이 테크 분야에서 신규 채용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기업 아마존이 보스턴 지역으로의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 1일 공개했다. 보스턴 시포트 지구(Seaport District)에 대규모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인 아마존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2천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시에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은 시포트 지구에 위치한 43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건물로 2021년에 테크 허브를 이사한다고 밝혔다. 주로 인공 지능 학습, 언어 인지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로봇 공학 분야에서 새로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보스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마존 직원은 약 1,200명이다. 주로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의 개발을 맡고 있다. 2016년에는 아마존이 매사추세츠 폴 리버 지역에 물류 창고를 건설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천명 정도다.

아마존이 새로운 테크 허브를 구

상하고 있는 시포트 지구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이 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하이 테크 분야의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최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은 성명을 내고 아마존의 결정을 축하했다. 월시 시장은 “아마존이 시포트 지구에 큰 발자취를 남기면서 확장하는 것은 보스턴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인 기회

를 우리 도시에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보스턴 시포트 지구 확장 계획에는 소외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오피스 건물 건설을 통해 마련되는 자금으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마존의 보스턴 시포트 지구 확장은 작년년부터 진행 중인 제2 본사와는 무관하다. 아마존의 제2 본사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향후 10년 동안 50억 달러가 투자되며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jsi@bostonkorea.com



사진 중앙의 주차장 부지에 아마존의 새로운 테크 허브가 들어선다



우버와 리프트, 보스턴서 하루 10만 번 운행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우버와 리프트 같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주 정부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보스턴에서 라이드 헤일링 이용 건수는 약 3천 5백만 건이었다. 하루 평균 9만 6천 건에 달한다.

매사추세츠 주 전체에서 우버와 리프트를 이용한 횟수는 6천 5백만 건이다. 보스턴이 매사추세츠 전체 이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택시는 우버와 리프트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버와 리프트는 보스턴 지역에서 2013년에 택시 이용 건수를 따라 잡았는데 당시 이용량이 연간 1천 140만 건 정도로 지금의 1/3 수준이다. 작년에 보스턴에서 택시 이용량은 590만 건에 그쳤다.

우버와 리프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중 교통 이용자는 줄어들고 그만큼 보스턴의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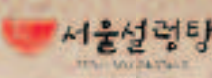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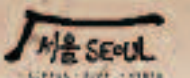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일부 상위권 입상 여성 마라토너 상금 못 받아

보스톤 마라톤 대회 형평성에 의문
엘리트 그룹 아니면 상금 자격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8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제시카 치체스터는 결승점 통과 시간 기준으로 5위에 입상하였으나 5등에게 주어지는 15,000달러의 상금을 받지 못했다. 치체스터뿐만 아니라 2018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일부 최상위권 여성 마라토너들은 순위에 따라 주어지는 상금을 받지 못했다.

매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BAA(Boston Athletic Association)에 따르면 마라톤 우승자를 포함해 상위권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엘리트 그룹에 속한 마라토너만 받을 자격이 있다. 더 좋은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더라도 애초에 엘리트 그룹과 함께 출발을 하지 않았다면 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BAA는 여성 마라토너들을 5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시간에 출발 시켰다. 엘리트 그룹은 합킨턴에서 오전 9시 32분에 출발하였으며, 엘리트가 아닌 그룹은 1부터 4까지 그룹으로 나뉘어 10시부터 11시 15분 사이에 출발하였다.

BAA는 웹사이트를 통해 상금을 받기 원하는 여성 마라토너들은 이메일을 통해 엘리트 그룹에서 마라톤 경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트 그룹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 마라토너들은 상금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마라토너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엘리트 그룹에서 마라톤을 뛰고 싶어도 애초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8 보스톤 마라톤에서는 여성 엘리트 그룹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2시간 47분 50초로 제한했다. 이전 마라톤 대회에서 2:47:50 이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으면 엘리트 그룹에서 뛰지 못하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BAA는 디렉터 인터뷰를 통해 “보스톤 마라톤은 다른 선수들과 서로 마주보며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시합이다. 시간을 재는 시합이 아니다”라며 “상금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돌파를 시도하는 보스톤의 제이슨 테이텀

부상병동 보스톤, PO 1차전서 라이벌 필라델피아에 완승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보스톤 셀틱스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보스톤은 20일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의 TD가든에서 열린 2017-2018 NBA 플레이오프(7전 4승제) 동부콘퍼런스 2라운드 1차전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117-101로 이겼다.

정규리그에서 고든 헤이워드, 카이리 어빙 등 에이스 두 명을 부상으로 잃은 보스톤은 이날 경기에서 제일린 브라운마저 부상으로 결장해 전력 누수가 컸다.

브라운은 이틀 전 밀워키 벅스와 1라운드 7차전 경기 도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고, 필라델피아와 1차전도 뛰지 못했다.

반면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는 정규리그를 16연승으로 마무리했고,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로 한 1라운드도 4승 1패로 일찌감치 마무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

는 팀이었다.

그러나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보스톤이 예상 밖의 16점 차 대승을 거뒀다.

보스톤과 필라델피아는 플레이오프에서만 20차례 맞붙어 NBA 플레이오프 사상 최다 매치업을 기록한 라이벌 관계다.

최근 맞대결은 2012년 2라운드로 당시에는 보스톤이 4승 3패로 이겼다.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톤을 잡아낸 시리즈는 1982년 동부콘퍼런스 결승이 최근으로 당시 필라델피아가 4승 3패를 기록했다.

보스톤은 이날 로지어가 29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테이텀은 28점, 알 호퍼드가 26점 등으로 뒤를 받쳤다.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가 31점에 13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3점슛을 5개밖에 넣지 못하고 보스톤에 17개를 내줘 원정 1차전을 맥없이 내줬다.

emailid@yna.co.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공화의원 18명, 트럼프 대통령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 공식추천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차대운 기자 =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2일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19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이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발송한 미 의회 공문을 통해서다.

루크 메서 의원(인디애나)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은 공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고 역내 평화를 가져오려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고 말했다.

특히 성명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무시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왔다고 강조했다.

메서 의원은 폭스뉴스에 "북한 독재자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끌어내리려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실에 세계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메서 의원 외에도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마샤 블랙번(테네시), 맷 개츠(플로리다), 다이앤 블랙(테네시), 스티브 킹(아이오와) 의원 등이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서에 이름을 올렸다.

메서 의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

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연방 의원이며, 나머지 의원들도 공화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로 분류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들 중 메서 의원을 포함한 다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상원의원 또는 주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AP는 전했다.

이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올해가 아닌 2019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기간이 지난 2월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추천은 각국 장관 이상급 정부 관계자, 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이 할 수 있다. 노벨상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0월 발표될 2018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330명이 추천된 상태다.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가 급진전하면서 이처럼 미 정계 안팎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는 가운데 밥 코커(공화·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은 다른 때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땅히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대북 압박에 있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많은 이를 단합하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추천한 공화당 루크 메서 의원(인디애나). 지난 4월 인디애나폴리스의 선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고 설명했다.

마이클 헤이든 전 미 CIA(중앙정보국) 국장도 CNBC와 한 별도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외교 정책 리더들이 다방면의 경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수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일부 평화운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등 거친 언사를 보인 점을 들어 그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화법 전술이 구소련에 성공적으로 맞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접근법과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한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를 향해 "노벨, 노벨, 노벨"을 연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열광적 반응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leslie@yna.co.kr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 급부상 트럼프, 트위터서 "고려"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내 구체적인 건물 이름과 그 이유까지 거론한 것을 볼 때 북미회담 개최 장소로 상당히 신중하고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회담 장소로 많은 나라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접경에 있는 평화의집·자유의집이 될 수도 있다. 제3국보다 대표성 있고, 중요하고, 영속적인 장소가 아닐까? 그냥 물어보는 거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

미정상회담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들은 스위스 제네바나 몽골, 싱가포르 등을 후보지로 예측했고 미 언론들은 그 중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내 '평화의집'과 '자유의 집'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을 볼 때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제3국보다 대표성 있고, 중요하고, 영속적인 장소가 아닐까?"라고 적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회담인 만큼 제3국보다는 판문점이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yjyj@news1.kr

트럼프 지지율 42%, 11개월 내 최고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마지막 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여론조사 때보다 4%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5월 7일 여론조사 때 얻은 지지율 42%를 11개월 만에 회복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자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격차도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 이란 핵 협상 논의 등 트럼프 대통령이 바쁜 한 주를 보낸 뒤 진행됐다.

지난주에는 남북한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갤럽은 지난 1월부터 매주 단위로 트럼프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 성인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표본오차±3.0%p)를 통해 진행됐다.

kyunglee@yna.co.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형제 떡집

GRAND 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주: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페북도 AI스피커 도전장 해외시장서 '마빈' 출시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페이스북이 카메라가 달린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름으로 '마빈'(Marvin)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두 종류의 AI 스피커를 내놓고 아마존의 에코(Echo), 알파벳의 구글홈(Google Home) 등 선두 주자들에게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 스피커에는 페이스북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Messenger)가 탑재돼 친구나 가족과 쉽게 대화하게 된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 스피커 중 하나에는 카메라와 터치스크린이 장착되며, 기기 명칭은 마빈이 될 수도 있다고 한 소식통이 귀띔했다.

페이스북은 다만 이들 스피커를 미국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먼저 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미국 내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자칫 AI 스피커의 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지면 역풍이 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지난 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개발자회의(F8)에서 AI 스피커 출시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

됐으나 실제로는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신 페이스북 앱에 하반기 데이트 기능을 추가하고, 메신저 대화를 번역해주는 M번역(M Translations)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newglass@yna.co.kr



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개발자회의(F8)에 참석한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페이스북, 2억명 싱글 위한 데이트 서비스 출시 예정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일 페이스북에 데이트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페이스북의 연례행사인 F8 콘퍼런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특화된 회사에 자연스레 들어맞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에는

자신을 싱글이라고 소개한 2억명이 있다"면서 "분명히 여기엔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데이트 서비스는 장기간의 관계를 맺을 상대를 찾는 것이지 단순히 상대를 낚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프라이버시를 염두에 두고 만들기에 친구들이 데이트 상대의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 CEO는 특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곧 출시될 것

이라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1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F8 회의에서 데이트 기능을 시연하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여름밤이 두려워, 미 벌레윅기는 질병 감염자 3배 증가

진드기 감염 '트랜드 바이러스' 최근 등장 CDC 국장 "지방 당국 협조와 투자 필요"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최근 몇년간 미국에서 모기와 진드기, 벼룩 등 벌레에 물려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미국 보건 당국이 1일 밝혔다.

이날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CDC)는 벌레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들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방충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CDC에 보고된 벌레 감염 질병 종류는 16개다. 총 64만30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2004년에는 2만4000명이 벌레에 물려 질병에 걸렸는데, 2016년에는 이 숫자가 9만6000명까지 늘었다.

최근 미국 본토에서는 진드기로부터 감염되는 하트랜드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라임병도 진드

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다. CDC는 매년 미국에서 30만 명이 라임병에 감염되지만 이 중 3만5000여명만이 진단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CDC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질병의 원인을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와 해외 여행의 증가, 백신의 부족 등을 꼽았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이처럼 벌레가 옮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 보건당국의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CDC 등 질병 치료와 예방을 연구하는 보건 관련 정부기관의 예산을 삭감했다. 올해 CDC 예산은 전년대비 17% 줄었다.

pasta@news1.kr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정원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불판
바베큐&라운지

점심 부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세트메뉴
강추!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주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북 CVID 수용 의향 밝혀, 북미회담 합의문 담길 듯

아사히 보도, 미 사전조율서 핵전면폐기 수용뜻 보여
비핵화 조치·보상 등은 향후 실무회담서 검토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무기 전면 폐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이 3일 북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당국자와 미국 핵 전문가 3명이 4월 하순부터 1주일 남짓 방북했고, 협의 과정에서 북한 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내용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핵폐기를 위한 기간이나 북한이 받을 보상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남아 회담의 향방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2000년대에 열린 6자 회담에서 원자로 등 핵관련 시설과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관련 국가

에 신고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을 쓴 사찰을 비롯한 검증 작업을 거부, 폐기에 이르지 못 했다. 또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는 군사 기밀이라며 신고 자체를 거부해 왔다.

비핵화 조치의 순서나 그 대가 등에 대해 북미는 정상회담 이후 실무 회담을 열어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 인권침해 문제나 생화학 무기, 원자력 평화 이용 등의 문제는 정상 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또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백악관은 전

일 "2,3일 이내에 개최지로 개최 일자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s914@news1.kr

태영호 북, CVID 수용 가능성 매우 낮다

RFA 인터뷰, 과거·미래 대신 현상유지 전략
북, 북미회담 자체를 외교적 승리로 간주할 것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의 잇단 비핵화 언급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받아들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태전 공사는 2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을 끝까지 갖고 있을 방법을 고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전 공사는 특히 김 위원장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북한 입장에서 핵 실험장은 '과거'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는 건 '미래'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때문에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미래'와 '과거'는 포기한다"는 '현상유지'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을 '핵을 만든 핵보유국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비핵화는 다른

핵보유국인 미국과 논의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를 외교적 승리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태전 공사는 이번 북·미 회담에서 양측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전 공사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것, 미국이 한반도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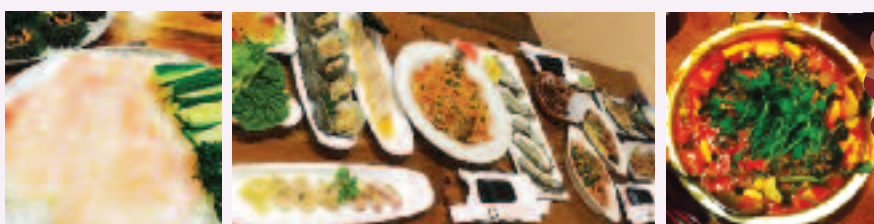
주변에 핵무기·전략자산을 전개·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불사용 선언'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시키는 것 등 크게 3가지를 일관되게 노리고 있다"며 "북한은 북·미 회담을 국내선전용으로 크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쌈 매운탕도 강추!

★
확장
오픈
★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Y 4 - MAY 10, 2018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SOUFFLÉ PANCAKES

SO SOFT. SO FLUFFY! FESTIVE LOOKING
FANCY BRUNCH AT HOME!

H마트가 소개하는 화제의 브런치! 부드럽고 폭신평신했 수플레 팬케이크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브런치를 즐기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원심본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lb.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lb.

Nagaimo
일본 마
\$4.99
lb.

Kabocha
단호박
\$0.88
lb.

Gobo
우엉
\$1.99
lb.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
14-16oz/pkg.
\$0.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99
lb.

Baby Plant
is now in stock
모종 입하!

Packed Garlic
팩마늘 5oz/pkg
2\$3
pkg./for

Ginger
생강
\$1.2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Beef Strip Loin Steak
채끝 스테이크
\$15.99
lb.

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lb.

Chicken Tenderloin
닭안심
\$2.99
lb.

Patella Bone
냉동 도가니
\$1.4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5.99
lb.

Marinated Beef Ribeye Steak
양념 발진
등심 스테이크
\$6.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on Shrimp
머리새우 70-80's
\$3.99
lb.

Abalone
냉동 전복
\$19.99
lb.

Belt Fish
냉동 갈치 1500-2000's
\$2.99
lb.

TONGTONGBAY Raw Peeled Shrimp
통통배 완새우
100-200's 1 lb./pkg.
\$6.99
lb.

Female Capelin
시사모
\$2.99
lb.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7.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ONG GI Medium Grain Rice
정기미
\$10.99
18 lbs.

KWANG CHUN NUNG HYP Green Tea Seaweed Layer
종이 녹차 녹차김 선물세트
0.7oz x 100ea./box
\$9.99

HAOREUM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해오름
메밀국수
1 lb.
\$4.99

BEKSUJANGRYN Frying Mix Pancake Mix
백설 튀김가루/부침가루 2.2 lbs.
\$1.99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H마트, NY 리더 코리아, The China Press가 주최하는
제5회 NY/NJ/PA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대상: 장학금 \$1000 및 특별 트로피와 상권 - 전체 1명
날 짜: 2018. 6. 2(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후보자: 2018. 6. 23(토) 11시 - 오후 4시
장 소: Overlook County Park Amphitheater
500getweed Park, NJ 07068

참여대상: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접수장소: H마트 NY, NJ, PA 매점 내 고객센터
접수기간: 2018. 4. 13 - 5. 27
참 가 비: \$20 (접수 접수 시 대회 상품권 \$20 컵 제공)
수상일: 2018. 7. 13 (금)
접수시 동부지역 어린이들의 수상에 대해 기쁨을 나누고
시 상 식: 2018. 7. 14 (토)
주 제: 달인 공작
문의: 매점 고객 서비스 센터 877.427.7386

NISHIMOTO Sei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이카 쌀
15 lbs.
\$9.99

NATURE'S Sweet Rice
자연담은 쌀밥
4 lbs.
\$4.99

HA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불고기/조림비 양념
4.2oz/Bag 2.11 lbs.
\$3.99

DANBA Tsubu Sauce
단바 소바소스
16.7 fl. oz.
\$3.99

HAOREUM Canned Sea Top Shell
해오름 통조림
등조림
14 lbs.
\$4.99

CHUNGJUNGONE Lunch Meat
청정원午餐肉 13oz.
\$2.99

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커리
All Varieties 8.11 oz.
2\$5

GOMPYU Wheat Flour
공표 밀가루
5.5 lbs.
\$3.99

SANGRAE Samanor Ice Cream
상그레 봉어 아이스크림
230g/2oz
\$3.99

CROWN Corn Chips
크라운 콘칩
5.25oz.
2\$5

SHIRAKU Coconut Milk
시라쿠 코코넛 밀크
13.9oz.
\$0.99

HELLO HOME Flower Diffuser
헬로홈 향유향 디퓨저
100ml.
\$12.99

HELLO HOME Aromas Shower Hitter
헬로홈 아로마 샤워 에코
스파 샤워 필터
5.6oz
\$12.99

HELLO HOME Flors Semi-Microfiber Comforter
헬로홈 플로라 세미 마이크로 미플
156 x 230cm
\$64.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mistak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0212) H-MART BURLINGTON STORE: 3300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43 / STORE HOURS: Sat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금감원장에 김오수 유력설...이르면 4일 제청 가능성

검 출신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급부상, 광주대동고 출신
청 내정 사실 없다 선긋기, 금융 문외한 논란 고심

(서울=뉴스1) 김현, 양새롬 기자 = 공식 중인 금융감독원장에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이 유력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16일 사퇴한 이후 김 법무연수원장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윤석현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등을 후임 금감원장 후보로 검증해 왔다.

그러나 김 법무연수원장 인선 가능성에 급격하게 무게가 쏠리고 있는 흐름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김 법무연수원장 인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김 법무연수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면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다.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최초의 금감

원장이 될 전망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법무연수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김 법무연수원장은 금융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광주 대동고 동문이다.

청와대가 김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한다면 금융적폐 청산과 금감원 조직 쇄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김기식 전 원장 사퇴 논란 당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고 밝혔었다.

또한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앞두고 '금융검찰'의 수장을 비워두는 게 좋은 모양새가 아닌 만큼 인선을 서두르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청와대에선 금감원장 내정설 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장이 내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다. 그분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다른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는 중이거나 김 법무연수원장을 사실상 낙점한 상태에서 여론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금융 문외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사·사법연수원 20기)

금 고심할 여지가 적지 않아서다. 당장 업계에선 "금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신임 금감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도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다.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 초에 할지 (모르

겠다). 인사팀 얘기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제청안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지난 2일 개최된 데다 격주로 열리는 만큼 금주나 내주에 제청을 하기 위해선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gayunlove@news1.kr

김경수 드루킹 의혹, 내일 소환조사로 말끔히 씻길 것

3일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국회의원 사퇴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김해울) 국회의원이 3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저는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면서 "경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과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경남을 살리고 바꿀 사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다"며 "경남도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새롭게 바꾸고 경남이 과거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던 경남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예비후보 등록을 1주일 앞당긴 이유에 대해 "경찰소환이 이뤄지면 당초 계획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나갈 예정이었지만 생각보다 늦어졌다"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사건에 매달려있는 것은 선거운동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경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주력한 뒤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소환을 앞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며 "이번 사건은 내일 소환으로 끝내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경남을 만들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간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내일(4일)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당당하게 밝혀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씻어낼 것"이라며 "정치공세는 야당의 몫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발목을 잡을 일인지는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5·6·7일 연휴기간에 향후 일정을 정리할 계획이며, 오는 8일에는 김태호 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국회 회기 중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국회의원 직 퇴직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ok1813@news1.kr



김경수 더불어민주당(김해울) 국회의원이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접수증을 들고 웃고 있다

김어준, 박진영 디스패치 보도 비판 사람들 바보로 보나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어준이 박진영에 대한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 기사를 비판했다.

3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에서 김어준은 "'박진영 구원과 전도 포착'. 어제자 디스패치 단독 기사다. 박진영이 구원파라는 게 디스패치의 주장이다"라며 "박진영이 구원파건 아니건 우리가 왜 박진영 개인의 종교관을 알아야 하는 건가. 디스패치는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종교관을 따지고 기사화하는 건가. 박진영 개인의 교리 해석이 어떤 이유로 사회적 의제가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 후반에서는 청해진 해운의 이상한 자금 운영에 대해 말하더라. 그 자금 운영이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증언,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 그럼 그걸 제시하던지. 더 황당한 건 박진영의 종교관과 청해진 자금운영을 왜 한 기사에서 쓰고 있는 건가. 박진영이 그 자금 운영에 개입했나. 아니면 청해진 주주인가. 이 기사의 의도는 대체 뭐냐. 이런 기사 하나 던져주면 시민들이 구원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구원파 신도인 박진영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며 떠들

어 댈 거라 기대하는 건가. 사람들을 바보로 보나. 그게 아니면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대체 왜 나온 걸까. 이상 김어준의 생각이었나"고 밝혔다.

이후 김어준은 "기사를 읽어보니 황당하다"고 하자 김은지 기자는 "박진영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어준은 "본인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구원파건 아니건 과거에 아니라고 했다가 구원파가 됐든 그건 죄가 아니다. 왜 몰래 잠입해서 취재하고 개인의 종교관을 폭로하냐.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거니와 그걸 타인이 강제로 공개하는 게 어떻게 공익이 되냐. 디스패치가 이걸 추적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 안 된다"고 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은 "중대한 법적 책임 혹은 사회적 지탄을 둘 다 동시에 받아야 하는 기사라고 생각한다"며 디스패치 보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2일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구원파 신도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breeze52@news1.kr



김어준(오른쪽)이 박진영 구원파 보도를 한 매체를 공개 비판했다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세탁소 매매

Haverhill에 위치. 매상 \$150,000 세탁소
저렴한 렌트비, 24년째 운영중. 안정적인 매상

Asking **\$135,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년매상 \$250,000 이상. 안정되고 물안에 좋은 자리 위치
안정된 고객층 및 발전 가능성 +

Asking **\$220,000**

Business



옷가게 매매

보스톤에 위치한 옷가게 매매. 인벤토리 포함.
2,000 Sq. Ft.

Asking **\$150,000**

Commercial



커머셜 리스

알링턴 Mass Ave 선상에 위치한 커머셜 자리 리스.
1,000 Sq. Ft \$3,000 plus NNN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Business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545,000**

Business



드롭오프 세탁소 매매

\$185,000 년매상, 1,000 sq.ft.
보스톤 인근
메인길 선상에 위치

Asking **\$120,000**

Business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Fish Market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000 이상. To-go 메뉴 Extra 수입.
소비자 리뷰가 매우 좋은 가게. 넓은 주차공간

Asking **\$180,000**

Business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을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세탁소 매매
좋은 동네, 안정된 고객층
800 Sq. Ft. 년 매상 \$180,000

Asking **\$130,000**

Business



코인세탁소 매매

보스톤에서 15분거리 위치,
년 매상 \$350,000+, 2,500 Sq. Ft.
안정된 매상, 고객층 및 여유로운 주차장

Asking **\$450,000**

Business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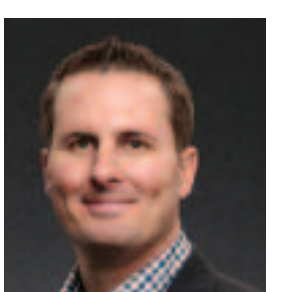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905C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1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69 Qunit Ave. - Unit 26
Boston,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Meadow St.,
Dedham, MA
Asking price: \$599,9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731 Beacon St. Unit 301
Brookline,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Town House Rental
53 South Walnut St. - Unit 2
Quincy, MA
Asking price: \$2,3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3 Larch Rd.
Ac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Teresa Vitelli
781.619.0473



Johanna Parlon
978.501.4753



M. Keith Peifer
304.963.292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平 (평)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 요한복음 20:19, 21.

남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을 정상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당국자들과 언론이) 묘사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잔혹한 정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크리스탈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일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합의는 과거 선언들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것.

힐 전 차관보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여러 번 방북(訪北)해 협상을 벌인 경험을 갖고 있어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대화파로 알려졌다.

북한 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고 아주 유화적이어서 ‘김정힐: 김정일+힐’이라는 평까지 들었었다.

그가 보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후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벌어지는 성급한 무드가 도(度)를 넘었다.

어쨌든 북조선(北朝鮮)과도 대화하고 협상은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집단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동족(同族)을 희생시킨 집단이 3대(代) 세습왕조를 구축, 주민을 노예화 시킨 것.

북한 주민들은 인권(人權)이란 낱말조차 모른체 짓밟히고 핵(核) 폭탄을 만드는 와중에 수십만명을 굶겨 죽이고 사람을 고사충으로 박살 내 죽이고 화염방사기로 태워 없애기도 했었다.

심지어 김정은의 고모부와 이복형도 잔인한 죽음을 면치 못했었다.

1.21 청와대 공격, 무장공비 양민학살,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서해 기습,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한민국을 향한 테러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힐 전 차관보는 “북은 잔혹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그런 표현도 부족하다.

목숨을 건 탈북행렬이 3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증거하나?

김정은이 아무리 과격적인 말을 한다해도 본질(本質)이 달라지겠는가?

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몇 번 웃음에 마치 통일은 되고 평화가 온 듯 들뜬 분위기가 만연하고... 마치 김정은이 영웅이나 된 듯 통일과 평화가 일시에 온 듯 들뜬 분위기... 김정은을 떠 받드는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다...

과거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뒤에도 ‘김정일 바람’이 유행하는 등 비슷한 풍조가 퍼진 적이 있었지만 우리에게겐 무엇을 남겼나?

만약 김정은이 핵을 실제 포기하고 정상 국가의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확인된다면 도울 필요가 있다.

북한이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가 된다면 순수한 원조가 왜 한국뿐이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들뜬 분위기로는 그 같은 날은 오지 않는다.

냉정한 자세로 북한의 핵 폐기가 진짜인지 살펴야 하고 북한 정권과 대화하되 그들의 실체에 대한 경각심은 결코 버려선 안된다. 독일의 선례(先例)를 따르려니까.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된다.

5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試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빠지게 된다.

당초엔 ‘6·25 남침’ 표현까지 빼려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넣기로 했다.

집필 기준에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 ‘민주주의’로만 규정했다.

평평: 고를 평 또는 평안할 평.

성경에선 평안(平安)으로 구약에 11번 신약에 6번 언급되고 있으며 화평(和平)으로 열번 (신약에 7번, 구약에 31번) 언급되고 있다.

평자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身分)을 지적한다. 첫째, 二(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위가 하나님(一), 성령님(三) 사이에 자리하신 二위. 둘째, 二 안에 八(팔)은 구원(救援, Salvation)을 뜻하며 주요한 것은 인자(人子) 예수님의 사람 인(人)이 갈라져 (또는 十에서 돌아가셔서 八로 쪼개졌다는 뜻). 人자가 八로 갈라진 것은 이 세상에선 죽고 저 세상 즉 천국(天國)에서 육(肉)이 아닌 영(靈)으로 영생(永生)의 제2생(生)을 하나님(一)과 성령님(三)과 더불어(二)로 삼위(三位) 하나님 위치를 확보 하느 나라에서의 영혼을 영원토록 주관하신다는 뜻.

해서 평자의 마지막 확인 十(십자가를 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ID(신분증) 이어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 마태복음 16:24.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는 그를 추종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하신 까닭이 있다.

十위에 즉 사람이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계(死後界), 사람들이 흔히 내 뱉는 천당(天堂)이 卅이 표시한다. 十구원으로 人(사람)이 八(팔)로 갈라짐은 죽음을 뜻하는데 卅자는 그 죽음 위에 또 一(일)이 막아 다른 세계와의 연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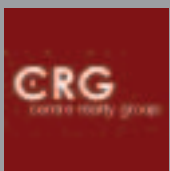
그 사후(死後) 세계가 곧 “하늘나라: 天國(천국)”을 뜻한다.

해서 卅의 최종 해석은 영원한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잘 옴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는 이를 작곡한 Frances J. Crosby(1820-1915)의 22개 찬송가 중 으뜸이다.

卅자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그려낸 찬송가여서 한 절만 소개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살다 보면 생활이나 생각이 막힐 때 卅자를 잊지 않는 것이 인생의 열쇠인 것을... 十 넘어 영원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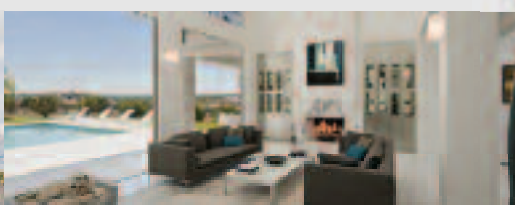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Jay Lee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아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금주의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얼스톤 88 마켓 푸드 코트 안 성업중인 식당 ASKING \$187,5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패키지 store ASKING \$200,000
--	---	---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95,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Dedham에 위치. Single Family House (7 bedr/4 bath, finished basement) ASKING \$745,000
---	--	--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李家 Rega's Grill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	---	--	---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톤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2017-18 입학사정 결과 분석”

5월 1일은 대부분의 고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중요한 데드라인이다. 이날까지 앞으로 4년간 다닐 대학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합격 통지를 받은 대학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기자명단에 올라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자기가 꿈꾸는 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빈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고문이 계속된다. 이런 기다림은 심지어 6월 혹은 7월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피로에 지친 입학사정관들은 숨죽이면서 행여나 이번 시즌에는 읽고 평가해야 할 지원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도 지원서 숫자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신입생 정원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어떤 때보다도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상위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입학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역대급 지원자 수를 기록하였다. 하버드에는 43,000명이 지원했는데, 스탠퍼드는 47,000명 이상, 코넬은 51,000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입학 경쟁이 낮아질 것이라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학 진학상담 전문가(Admissions Counselor)로서 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 도움을 주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받아 든 결과에 대해 종종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예를 들어 왜 자신들의 “슈퍼스타” 딸이나 아들이 컬럼비아나 펜(U. Penn)에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할 뿐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과 충고를 받기 원한다. 냉혹한 현실과 치열한 경쟁을 처음 직접 겪으면서 너무나 실망한 이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한다.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에 의하면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진학을 위한 확실한 전략과 계획의 부재이다.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한다. 기대가 지나치게 높고, 정확한 현실과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대를 하면, 실망감이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반대로 기대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항상 능력보다 낮은 성과를 내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비결은 현실과 야망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이다

.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고, 경쟁자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으며, 진학 현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이 어느 수준의 지원자이며, 강조해야 할 강점과 강조하지 않거나 혹은 설명해야 할 약점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처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담할 때면 나는 언제나 학생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혹은 그녀가 작성한 지원서를 검토한다. 보통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왜 그 학생이 탈락 혹은 보류가 되었는지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즉 그 학생이 제출한 지원서에서 약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약점들을 드러낸다:

- 지원서(application form)가 조직적이지 못하고 일관된 초점이 없다.
- 에세이(essay)가 지루하고 틀에 박힌 내용이거나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소개하지 못한다.
- 과외활동(activity lists)의 내용이 체계나 초점이 없다.
- 대학 지원에 전반에 걸친 전략이나 일관성 있는 계획 부족.

학생들 본인들은 지원서를 통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

각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지원서류 전체를 관통하는 포괄적 전략도 부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개성 있고, 인상적이며, 호감이 가는 지원자로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전술도 모자란다.

대학 지원서는 몇 페이지에 불과하다.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포장해서 강조함으로써 입학사정관들이 자신을 뽑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이를 위한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은 단지 학점이나 시험성적이 아니라, 재능과 인격을 갖춘 뛰어난 인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학 진학을 위한 뚜렷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에세이 주제도 정해야 하며, 지원서 완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짧은 분량의 지원서에 적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하다.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해 올해 지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올해 대학 입학사정의 현황과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대니얼 고를 위한 “선거기금 후원의 밤”

매사추세츠주 연방의회 3 지구에서 연방하원의원 도전에 나선 한인 대니얼 고를 위한 “선거기금 후원의 밤”을 5월16일 (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리셉션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다과와 간단한 저녁식사가 아래의 호스트 자택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행사일시: 5월 16일 (수) 6:30PM ~ 8:30PM

호스트: 박영찬

주소: 410 GREAT POND ROAD NORTH ANDOVER MA 01845

전화를 통한 예약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예약과 질문은 호스트 커미티 위원: 이경해 (508) 962-2689 ; 김성군 (617)799-7033 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 대니얼 고 후보 (32세) 는 고경주 전-연방 보건부 차관보의 아들로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 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지난 수년동안 NE시민협회의 한인 2세 지도자 심포지움의 기조연설 및 한인 정치인턴 장학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미국내 한인 정치력 신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고 선출을 위한 커미티에 기부하는 선거기금과 선물은 연방세-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은 (한 선거주기당) 미화 \$200이상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과 고용주의 이름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표가 아닌 개인수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ontributions or gifts to the Committee to Elect Dan Koh are not tax deductible. Federal law requires us to use our best efforts to collect and report the name, mailing address, occupation and name of employer of individuals whose contributions exceed \$200 in an election cycle.

있어도 발음되지 않는 g(그) 것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한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다. 잘 하는 학생은 지도가 필요 없고, 못하는 학생은 지도를 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교육이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인류가 생존한 이래 교육은 언제나 있었으니까. 다만 교육이 효과를 보려면,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며, 그에 따른 계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진단도 없이 무작정 원대한 목표를 세우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벗어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돌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유능한 의사라고 해서 모든 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진단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단어가 약한 학생은 독해가 약할 수밖에 없다. 독해를 못하는 학생이 논리적 사고가 강할 수 없다. 글 읽기는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외국어로 된 글 읽기는 해당 외국어의 단어와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어디서 그걸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식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가 번식을 한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이를 연상(association)이라 부른다.

속성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자는

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적 목표치를 물어 본다. 상상 속의 멋진 목표 말고, 예를 들어 토플 80점을 받은 학생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런 학생에게는 목표 이전에 먼저 왜 80점인가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건강진단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듯, 지도가 필요한 학생도 무엇이 약한지를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이란 단어 diagnosis는 ‘~을 통과해서’라는 접두사 dia-와 ‘알다’란 그리스어 gnosis의 결합이다. 부분만 보아서는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없고 전체를 꿰뚫어 보아야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각선은 전체를 가로질러 마주보는 두 각을 연결한 선이므로 diagonal이고, 원에서 중심점을 지나 마주보는 두 점을 연결한 선은 diameter(지름)라 한다. 속이 내비쳐서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diaphanous라 한다. 세계적 영화제로 발전한 부산영화제에서는 아리따운 여배우들이 속살이 보이는 시스루 옷을 입고 어찌구 하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see-through는 라틴어 식으로 하자면 diaphanous가 되겠다. 물론 dia-가 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diamond가 된다는 아재개그에서 dia-는 그런 접두사가 아니다.

‘진단’이란 영어단어 diagnosis의 두 번째 부분 -gnosis는 아주 복잡하다. 우선 영어에서는 n앞에 오는 자음이 발음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know, knave, knight, gnaw, gnat에서 /k, g/는 발음되지 않는다. 영어의 사촌인 독일어에는 이러한 규칙이 없다. 따라서 knave(악동)의 동족어인 knabe(아이)는 [크나베]로 발음된다.

그럼 diagnosis는 왜 [다이에그너시스]로 발음할까. 그건 (gn- 앞에 추가된) 모음 때문이다. 우리말에서도 ‘값’ 일 때는 /ㅅ/이 발음되지 않지만 ‘값이’라고 모음이 따르면 [갑씨]라고 발음되는 것과 비슷하다. sign에

서도 /g/는 발음되지 않지만 signature처럼 모음이 첨가되면 음절구조가 바뀌어 [시그니처]라고 발음된다. design[디자인]에서도 /g/가 묵음이지만 명사형인 designation에서는 /g/가 발음되어 [데지그네이션]이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알 수 없다는 뜻가지는 agnosticism도 부정 접두사 a-가 첨가됨으로써 /g/가 발음되므로 [에그노스티씨즘]이다. ‘순결한’이란 뜻을 가지는 이름 Agnes는 그리스어 hagnos에서 온 것으로 모음이 있기 때문에 [아그네스]이고, 닉슨아래서 부통령을 지낸 Spiro Agnew는 [스피로 애그뉴]이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함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Dabry Parish Korea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br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매는

BH HS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2018년 26차 연례학술대회

일시: 2017 년 5월 12일 (토) 8:00 am - 8:00 pm

장소: Harvard Medical School TMEC Walter Amphitheater
260 Longwood Avenue, Boston, MA 02115

Keynote Speakers



Career development session

1. Pathway to Academia

- Jae-Hyuck Shim Ph.D. (Associate Professor, UMass)
- Yumi Kim, Ph.D. (Assistant Professor, Johns Hopkins)
- Kaitlyn Choi, Ph.D. (Assistant Teaching Professor, Georgetown U)
- Dohoon Kim, Ph.D. (Assistant Professor, UMass)

2. Pathway to Industry

- Haley Kim Ph.D. (Governance Operations Manager, Takeda)
- Soo-Hee Park Ph.D. (Investigator, Novartis)
- Elizabeth Paik Ph.D. (Senior Scientist, CRISPR Therapeutics)
- Min-Kyu Cho Ph.D. (Investigator II, Novartis)

3. Mentoring Lunch

- Lunch with experts in both Academia and Industry

등록 : <https://nebs2018annual.eventbrite.com>

1. Early Bird Registration (\$10): 4/28 까지

2. On-site Registration (\$25): 행사 당일

3. Poster abstract submission: 4/13 까지

* 등록자 중 Poster Awards(\$100) 10명, Student Award(\$300) 1명 선정

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NEBS(www.nebskorea.com) 는 미국 보스턴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신진 생명과학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비영리 학술단체다. 하버드, MIT, 예일, 텡스, 브라운, 보스턴, 유펜 등 유수의 대학들과 보스턴 지역에 위치한 20여 개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등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눈빛으로 올킬" '무법변호사'

이준기x서예지

(서울=뉴스1스타) 윤호정 기자 = '무법변호사' 속 이준기-서예지-이혜영-최민수 캐릭터의 역대급 매력을 알리는 캐릭터 포스터와 2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12일 처음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무법변호사' (김진민 연출/윤현호 극본/스튜디오드래곤, 로고스필름 제작)는 법 대신 주먹을 쓰던 무법(無法)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무법(武法) 변호사로 성장해 가는 거약소탕 법정활극.

제작진은 2일 이준기-서예지-이혜영-최민수의 캐릭터 매력을 담은 포스터 2종을 공개해 예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드라마 속 캐릭터에 오롯이 빠져든 네 사람의 아우라와 함께 '무법변호사' 속 열연을 기대하게 한다.

이준기-서예지-이혜영-최민수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극과 극을 오가는 캐릭터로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그려가고 있는 대체불가 배우들. 그런 이들이 '무법변호사' 에서 김



진민 감독의 섬세한 디렉팅 아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캐릭터에 완벽하게 동화된 이준기-서예지-이혜영-최민수 등 대한민국에서 본 적 없는 카리스마 조합과 명불허전 최고의 '히트작 메이커'

김진민 감독이 만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18년 최대 이슈작 tvN 새 주말드라마 '무법변호사' 는 '라이브' 후속으로 오는 5월 12일 토요일 밤 9시 첫 방송 예정이다.

ichi@news1.kr



조진웅X류준열 '독전' 15세 등급 "폭력·마약 제한적 묘사"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독전'(이혜영 감독)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1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독전'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측은 "마약조직과 수사관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 총격전, 총기 살해, 고문 등 폭력묘사와 마약의 불법 제조 및 불법거래 등 약물물에 대한 내용들도 빈번하지만 제한적으로 묘사되어 영화 전반의 수위를 고려할 때 15세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

는 영화'라고 등급 분류 이유를 설명했다.

'독전'은 아시아 마약 시장 거물을 쫓는 형사가 조직의 후견인과 버림받은 조직원, 조직의 숨겨진 인물 등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영화다.

조진웅이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형사 원호, 류준열이 버림받은 마약 조직원 략 역을 맡았다. 차승원, 김성령, 박해준, 故 김주혁이 출연했다. 오는 24일 개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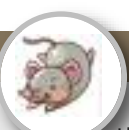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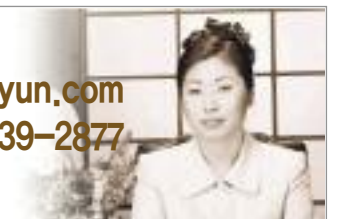
eujenej@news1.kr

5월 6일 - 5월 12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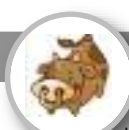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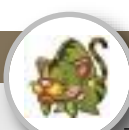
쥐띠 | 긍정적인 시야를

●운수:비관론자는 빨간 신호등만을 보고 낙관론자는 어디 서든지 녹색신호등만을 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야를 가져보세요. ●금전: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금전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애정: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일 있어서 혼자서 고민하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9, 12일 길일. 7, 1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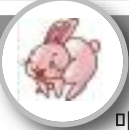
소띠 | 상승하는 흐름으로

●운수:여러 면에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나는 더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때입니다. ●애정: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8, 9일 길일. 6, 1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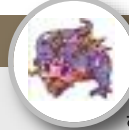
범띠 | 틈나는 대로 대화를

●운수: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으로의 쓰임새는 그릇 가운데를 비움으로써 생깁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비워두어야 합니다. ●금전: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깁니다. ●애정:가족과 틈나는 대로 대화를 나누세요. 밖에서 인정받아도 가정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균형 있는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6, 11일 길일. 7, 12일 주의.



토끼띠 | 서남쪽에 도와주는 기운이

●운수: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니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약이 있어서 중단되거나 끌어오던 상황이 바뀌면서 발전이 기대됩니다. ●금전:서남쪽에 도와주는 기운이 있으니 방향을 잘 활용하면 귀인을 만나고 금전적으로도 회복되어갑니다. ●애정:위기에 있던 애정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고독한 상태에서도 벗어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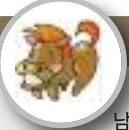
용띠 | 넉넉한 마음으로

●운수: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뜻밖의 변수도 있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고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한번 거절에 물러서지 말고 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원하던 일을 해내고 재물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기다리거나 참아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고통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10일 길일. 6, 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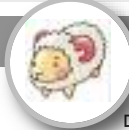
뱀띠 | 착실하게 쌓아가야

●운수:좁은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혀야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금전:하나에서부터 숫자세기를 시작합니다. 적은 돈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착실하게 쌓아가야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애정: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른다고 합니다. 더 모를 일이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의 일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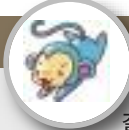
말띠 | 행복을 주는 시간이

●운수: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직접 해야 흥이 변해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유리한 조건의 일이나 계약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고 수익이 따라주겠습니다. ●애정:서로의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양띠 | 경제운이 좋아지니

●운수: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대감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금전:경제운이 좋아지니 거래에 있어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온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애정: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주말에는 멋진 데이트도 기대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1일 길일. 6, 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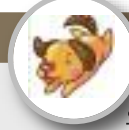
원숭이띠 |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운수: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줄 것입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금전:친구나 친 인척간에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니 너무 냉정하게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애정:어려움이나 슬픔을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



닭띠 | 아작은 때가 이르니

●운수:무슨 일이든지 무리하지 말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부터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든 깨끗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크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크게 지출할 일도 없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애정:동쪽이나 북쪽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작은 때가 이르니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



개띠 |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운수:더 이상 스트레스가 쌓여서 탈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몸과 마음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전:갖고 싶은 대로 사들이다가 형편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돈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애정: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1일 길일. 9, 12일 주의.



돼지띠 | 끈기를 가지고

●운수:큰 발전도 없고 큰 퇴보도 없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전:지금은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투자와 매매와 관련된 일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때로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1일 길일. 7, 10일 주의.

구직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에서 오후 5시 이후부터 일하실 분 구합니다.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음.
T. 617-584-5477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레스 구함.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T. 508-366-8898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 헤이버힐(Haverhill, MA)에 위치한
Breakfast & Lunch Restaurant 매매합니다.
Tel. 603-361-7350 (Mimi) 전화연락주세요.

RETAIL DRY CLEANER FOR SALE

- 3 BOSTON LOCATIONS
- 1 PLANT PLUS 2 DROPS
- ESTABLISHED IN BOSTON
- MODERN EQUIPMENT
- GEORGE & COMPANY

CALL BROKER; JEFF LEFEBVRE
TEL; (508) 864-4658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비디오스타' 레전드 개그맨들 뒀다

임하룡X전유성X이홍렬X이성미

(서울=뉴스1스타) 손현석 기자 = '비디오스타'에 방송 경력 합만 '166±α'라는 전유성, 임하룡, 이홍렬, 이성미가 출연해 화제다.

이들은 개편 후 첫 방송을 맞은 MBC every1 '비디오스타'의 '비스장수기원 특집! 네버스탑! 네버다이!' 편을 통해 죽지 않은 개그감을 선보인다.

이날 이홍렬은 "나나 유성이 형이나 게스트는 절대 안 나간다"며 임하룡이 불렀기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전유성 역시 "임하룡이 불려서 청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덧붙여 스튜디오를 놀라게 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데뷔 40주년을 맞아 디너쇼를 준비하는 임하룡을 위해 의리로 뭉친 것. 이에 임하룡은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훈훈함도 잠시, 이들은 MC에게 독설을 날리는 것은 물론 서로에게 폭로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들은 데뷔 연도를 따지며 서열 따



지기에 열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네 사람의 방송 경력 합이 '166±α'인 이유가 밝혀졌다.

한편 소녀시대 씨니의 합류로 더욱 독해

진 MC 군단과 4명의 현역 장수 스타가 함께 하는 '비디오스타'는 1일 밤 8시 30분에 방영된다.

spinoff@news1.kr

유재석, 김제동 라디오 방송 깜짝 출연..."일자리 얻은 거 축하한다" 폭소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유재석이 김제동이 진행하는 굿모닝FM에 깜짝 출연했다.

유재석이 MBC FM4U 라디오 방송 '굿모닝 FM 김제동입니다'에 출연했다.

유재석은 "늦었지만 김제동 씨 축하드립니다. 일자리를 얻어서, 매일 매일 출근하는 거, 제가 김제동 씨의 친한 지인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제동이 일을 해야 했거든요. 제 일처럼 기쁘다"라고 장난 섞인 축하를 해 웃음을 안겼다.

유재석은 김제동에게 "전화 연락이 온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갈까 말까 하다 안 갔다. 그런데 전화가 생각보다 늦게 왔다. 갑자기 소리가 울리면 이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유재석은 아침 방송을 원하는 것 같다는 김제동의 말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침, 밤을 가리지 않는다. 원래 하루종일 컨디션이 좋다. 자다가 깨워도 토크를 하는 스타일이다. 언제든지 토크는 준비되었다"라고 대답했다.

europ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톤코리아 연재소설

유희주 작가

둥근 빛 (3)

‘아기가 나를 다 빨아먹는구나’ 라는 이 비상식적인 생각이 량의 몸속에서 부풀어져 가고 있었다. 량은 젖 먹이는 것을 포기했다.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이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기억이 끌려 나오기 시작한 이후 단 이 년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음식을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은 자신이 먹었다. 남편과 아들의 옷을 사야 할 때도 량은 자신의 옷을 먼저 샀다. 모든 친인척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자신의 옷은 빨아서 다리미질을 해서 입었지만 남편과 아들의 것은 대충 빨아 개지도 않고 옷장 옆에 놓아두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남편이 물어도 량은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사라진 시간을 기억 못하고 살아도, 징그럽도록 끔찍한 기억들이 몽땅 기어 나와도 세월은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량 혼자만 시간의 다른 줄기를 잡고 견고 있다고 느껴졌다. 량은 가끔 이명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난 말이에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당신과 내 아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 계집애의 사무친 슬픔이 나를 잡아먹고 있어요. 난 그 계집아이의 식량이 되어야 해요. -

그 즈음부터 량은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달리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다. 남편이

된 어린 남자는 변해가는 량을 집안에 붙들어 놓기 위해 애를 썼지만 량이 변해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량의 몫이고 밖에 나가 돈을 버는 일은 어린 남자의 몫이었다. 어느 날 량은 눈을 반짝이며 어린 남자에게 온갖 교태를 다 부린다. 량의 무관심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량이 총기 어린 눈을 깜박이며 쿡소리를 내면 어린 남자는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오 개월이 되어 가는 아들을 반짝 들어올려 왼손으로 감아 허리에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량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린 남자는 량의 목소리가 밝게 빛나면 금세 우울에서 빠져나와 가족을 지키는 장수가 된 기분이 되어 한참을 산다. 그러나 그러한 량의 행동에 주기가 있다는 것을 1년쯤 지났을 때서야 알았다. 그 주기가 처음에는 여자들의 생리 주기라고 생각했다. 생리 전후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생물학적인 변덕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주기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량은 남편이 봉급 봉투를 갖고 오는 날이 다가오면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여 봉투를 손에 넣은 다음 날부터 예의 무관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편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거듭한 후에야 돈을 어디에 썼으며 저축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물었다. 단 한 푼도 모아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량의 표

정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눈을 천진하게 깜박이며 품으로 기어들던 여자의 모습은 전혀 없고 밀랍 인형처럼 딱 한가지 표정으로 ‘돈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간다. 그 뒤로 어린 남편은 량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직접 집안 살림의 경비를 책임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관계 개선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량에게는 부부관계를 종결짓는 이유가 되었다.

량은 그 기억과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 그 기억이 가족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은 량에게도 가족에게도 고통이었다. 도서관에 가서 이와 유사한 병증을 찾아 보며 스스로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새 전적으로 기억 속의 어린 계집아이의 편에서 있는 자신을 종종 그 후로는 아주 오래 느껴야 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멋지게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듯 살아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러자 이 구차스러운 삶의 형태가 죽도록 싫었다. 구질구질한 동네도 싫고 방 하나에 모든 짐이 적당히 나뉘어 있는 것도 싫었다. 량은 남편의 월급을 아껴 쓰고 돈을 뒤로 모으는 것을 시작했다. 남편이 돈의 사용 용도를 물어 온 후 돈을 뒤로 모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의 돈으로는 생활을 하고 량은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일을 시작했다. 량이 버는 돈은 온전히 량의 주머니 속에서

쌓여 가고 있었다. 남편은 이제 거의 남처럼 사는 부부 관계에 익숙해져 있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량이 더 이상 어리고 착한 여자가 아니듯 어리고 착한 남자의 모습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량은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살뜰한 모성은 포기했다 해도 최소한의 책임은 다 하고 싶었다. 아들과 아무런 잔정이 없었지만 그게 아들의 잘못은 아니다. 량은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그 미안한 마음은 만들어서 생긴 것이다. 축축하게 가슴에 젖어들지는 않았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운 공감의 마음은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었다. 그 중 사회생활에 필요한 몇몇의 마음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4월의 뿌연 황사가 가득한 어느 날 량은 서서히 계획을 실천했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에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리팅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GRAND
OP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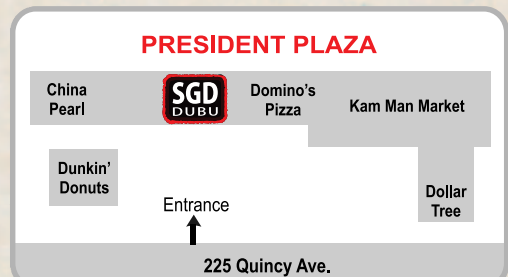


소공동
So Gong Dong Tofu & B.B.Q.



소공동 순부두, 보스톤 퀸시에 오픈!

품격있는 서비스, 편안한 인테리어, 웰빙푸드로
여러분을 명품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PRESIDENT PLAZA

China Pearl, Domino's Pizza, Kam Man Market, Dunkin' Donuts, Dollar Tree

Entrance ↑
225 Quincy Ave.

So Gong Dong Tofu & B.B.Q.

10% OFF

Valid Mon-Fri, 11am-9:30pm only

One coupon per table.
Must show this coupon before you order

Exp. Date:
Jun. 30, 2018



영업시간:
월-일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617.302.4646

225 Quincy Ave. Quincy, MA 02169

* 행사기간: 4/13/2018 ~ 5/13/2018

부모님들의 100세 건강 프로젝트

Mother's Day Special Sale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건강!
나중에 효도해야지 생각하면 늦습니다.
부모님 만족도 200%... 써 보신 분들은 압니다.

시원하고 다양한 마사지 효과를 자랑하는 **명품 안마의자**와
개운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약속하는 **명품 매트리스!**
청소기의 최고 명품 **다이슨**에서 **김치냉장고** 까지...

하이트론스에서 효도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사용해 보니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INADA Dreamwave or **PANASONIC MAJ7** **상품 1**

할부구입

36개월 무이자 할부 +
다이슨 V7 무선청소기 증정

일시불구입

반신욕기 or
삼성김치냉장고 증정



PANASONIC MA70 (흰색, 검정색
가능합니다) **상품 2**

특별할인

\$4,999.99

As low as \$139 per month
for 36 months.

36개월 무이자 할부 +
다이슨 V7 무선청소기 증정



**모든 안마의자
구입시**

Up to 36개월 무이자 할부
다이슨 V7 무선청소기 증정



**이태리명품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시**

Up to 24개월 무이자 할부
물걸레 청소기 증정



**스탠드 김치냉장고 or
삼성 220L 구입시**
다이슨 무선청소기 V6 무료증정



상품 6

다이슨 제품
구입시
유명 고기집
사용하는 불판
무료증정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ORDER NOW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빌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옆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8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i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원컨도넛 매장 옆)
201-941-001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4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평화, 새로운 시작!!

4.27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아침은 참으로 감동의 순간이었다. 참으로 멀고도 먼 그 길은 서로 한 발짝만 옮기면 닿을 수 있는 좁고도 낮은 판문점 콘크리트(시멘트) 벽이었다.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4.27 남북정상회담의 그 날은 우리 민족만의 통일을 염원하는 날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감사와 감동의 날이었다. 서로 서두르지 않더라도 천천히 평화로의 시작이길 기원한다. 당장 통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왕래하며 오갈 수 있는 시작이길 간절히 기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

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판문점 도보다리에서의 두 정상의 대화의 내용은 사실 들리지 않았지만, 푸른 숲에서 작은 테이블을 두고 중간 중간에 서로의 웃음이 오가는 표정과 손짓에서 다정다감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세기의 변화와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숲 속에서의 두 사람은 평안함과 편안함의 한쪽의 그림같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의 시작 점인 아닐까 싶다. 그것은 세계 평화를 원하는 모두의 바람이고 염원인 까닭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두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나오는 그 시간까지 간절했었다.

처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의 대화>를 누가 착안해 내었을까. 궁금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이 세기의 장면은 청와대 실무진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날의 해가 저물 무렵에는 두 정상이 그 도보다리 위에서 무슨 이야

기를 나누었을까. 다시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두 정상은 수행원도 물리고, 취재진 없이, 오직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었다. 참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아니던가. 이렇게 가까운 그 길을 그렇게 멀리 돌아와 만나 마주한 이 시간이 말이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군이 5월 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대남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어린 유년 시절의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경기북부 작은 시골 마을이 고향인 까닭이다. 그것은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인 DMZ(demilitarized zone) 지역에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다. 어릴 적 기억 속에는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면 더욱 크게 들리던 대북 확성기의 소리는 어린 아이에게는 두려움이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북, 대남 확성기의 철거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비무장지대 지역에서 살며 전쟁에 대한 불

안과 두려움에서 살던 주민들에게는 이미 평안과 평화가 시작된 것이리라. 또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남북 국민)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이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리라. 그렇다,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세워주고 보듬어주며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평화의 길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길 소망한다.

노벨상을 양보한 멧쟁이 문재인 대통령!! 한국 뉴스를 통해 '노벨평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뿌듯해졌다. 지난 30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로부터 '노벨평화상을 받으시라'는 축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수석 보좌관 회의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라 답했다고 한다. 그 여유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지 아니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청중이 '노벨'을 외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가 받으시라'며 겸양했으니 말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나눔과 공유共有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주고 받으면서 안정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다. 한지붕에 두가족이라 해야겠고, 공유결합은 말그대로 공유共有이다.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 결합력이 높다.

한동안 나누자 했다. 이온결합이라는 말이다. 부자라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눌 수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국가. 한국 현정부가 외치는 말이다. 공유共有로 가자는 말일게다. 박노해 시인이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 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
빛은 나누어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
(박노해, 나눔의 신비)

한국에선 남북정상회담은 끝났다. 바라건대, 남북간에도 공유결합이라면 좋겠다 싶다. 주는 것이 있다면, 받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 피차 모자라는 것 투성일텐데, 주고 받으며 공생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작년 여름인가 보다. 한국 SK 그룹 회장이 선언했다. 자신의 기업을 사회와 공유共有하겠단다. 말투는 신선했는데, 내가 아는 기업의 목적과는 사뭇 달랐다. 기업의 목적은 많이 팔고 이윤을 크게 남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남는 이익에 맞게 정당하고 적절한 만큼 세금은 내야한다. 거둔 만큼,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하는 건 국가의 책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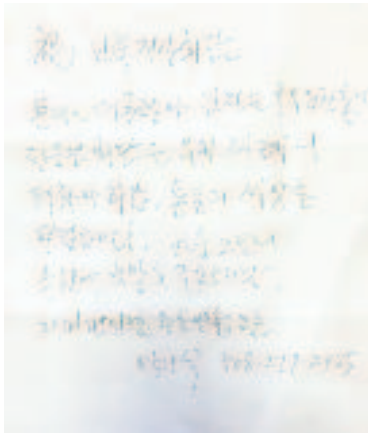
화학의 기초개념이다. 화학결합엔 이온결합과 공유共有결합이 있다. 이온결합은 소금

(NaCl)이 좋은 예이다. 소금은 원소元素 나트륨(Na)과 염소(鹽素Cl)간의 결합체이다. 나트륨에서 남는 전자를 염소에게 주어 결합하는 거다. 염소는 그저 받기만 한다. 이온결합은 나눔이라 해야겠다.

공유결합은 다르다. 메탄가스가 있다. CH4가 분자식이고, 매우 안정한 형태이다. 원소로써 탄소(C)와 수소(H)는 각각 전자가 부족하다. 그렇기에 탄소는 수소에게, 수소는 탄소에게 전자를 제공하고, 한편으로 받게된다. 피차

祝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은 우리 겨레의 평화와 화합,
통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구순 노인의 숙원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재미 범민련 동포연합 고문 **박기식**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논리적 예견의 현실

월스트리트의 최고 금융회사에는 Chief Market Strategist 라는 직책이 있다. 이는 회장 바로 밑에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중역의 자리이다. 이 CMS 들은 세계 최고급 정보를 접하고, 유능한 연구원들이 제공하는 분석을 활용하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총체적 의견까지 수집할 수 있다. 이들은 최고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들에게 엄청난 연봉과 보너스로 대우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아이없는 현실을 발견한다. 이들의 예견이 주식에 문외한 일반인의 그것보다 틀린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20여개 최대 월스트리트 CMS 들이 예견한 시장의 결과는 실제와 14.7% 이상의 오차를 보였다. 이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매년 조금씩 오르겠지요” 라고 예견한 일반인은 14.1%의 오차를 보였다. 즉 그 많은 지식, 경험, 정보, 고급인력 등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역으로 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최첨단 과학에 의해서, 엄청난 자

본으로 개발된 최고의 약과 의술을 처방받은 환자가 10년을 살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환자는 11년을 산 것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주식시장의 방향/결과는 과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를 물리학이나 수학을 다루 듯이 논리적인 결과를 유출하려는 것이다. 가령 대서양 횡단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을 때, 바로 다음날부터 잔여 콩코드 여객기의 비행기표가 매진이 되었다. 이는 논리



적으로 보면, 콩코드 비행기는 운항정지를 발표하기 전이나 후나 같은 서비스 같은 소음, 같은 조건이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희소성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다.

사람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금요일을 하루종일 쉬는 일요일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영향 때문이다. 금요일은 하루종일 일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다는 기대감이 다음날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의 일요일보다 강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견한다. 매년 낙관적인 예견을 하는 사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조금씩 매년 오르겠지요” 라는 사람.

미래의 주택시장의 온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세계 최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유능한 연구원들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까지 검토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더욱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일까?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모든 정보에 의해서 확실히 좋거나, 나쁠 것이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는 “그냥 계속 조금씩 좋아지겠지요” 가 맞을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주택구입 후 5년 뒤에는 가격이 얼마쯤 상승될까를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로 5년 뒤의 가격상승을 알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정보로 금년의 가격상승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씩 매년 오르겠지요” 가 더욱더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26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1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때는 진지왕의 마지막 치세년인 579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흥왕의 차남으로 태어난 진지왕, 그의 휘는 사륜(또는 금륜)이다. 그는 형 동륜태자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치마폭을 풀리고 월담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는 바람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진흥왕이 죽은 후 진흥왕비 사도태후와 미실의 정략으로 미실을 왕비로 책봉한다는 조건하에 왕위에 올려졌다. 하지만 그는 미실을 왕비로 책봉하지 않았다. 만 3년 왕위에 있으면서 쌓은 업적도 별로 없이 정사政事는 돌보지 않고 정사情事에만 몰두하다가 폐위당했다. 즉위년인 576년 8월 부터 이듬해까지 친정을 하였지만 577년부터 579년 폐위 당할때 까지는 상대 등으로 있던 거칠부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결국 허울좋은 왕좌에만 앉아 있다가 폐위당하고 난뒤 1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즉위한지 4년이 되던 해에 정사가 어지럽고 문란하여 국민國人들이 폐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화녀와의 사랑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진지왕이 폐위되기 직전에 도화녀를 후궁으로 삼으려다 그녀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2년 후 남편이 죽은뒤(이 때는 이미 진지왕도 죽고 없었다) 진지왕의 혼령이 나타나 둘이 관계를 맺었고, 이 후 도화녀는 비형랑을 낳았다.

비형은 진평왕대에 관리로 등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 권1, 기이2, 도화녀 비형랑 참조). 한편 삼국사기에는 진지왕이 자연사한 것 같이 기록되어 있다.

579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왕궁에서는 사도태후와 미실이 주동이 되어서 진흥왕의 이부동복 아우인 세종전군 그리고 사도태후의 오라비 노리부 등의 세력을 이끌고 ‘정난황음’에 빠진 사도태후의 차남 진지왕을 몰아내고 장손 김백정(진평왕, 동륜의 장남)을 왕위에 올리던 무렵이었다(즉 정치세력면에서 본다면 동륜계가 사륜계를 밀어내고 왕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권력의 추는 멈추지 않기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거치고 나서 왕위에 오르는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이다).

이런 정변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도태후와 미실은 문노의 힘이 필요하였다. 당시 국선화랑의 수장으로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있던 문노, 그의 협조는 절대적이었다. 우군友群은 아니더라도 적군敵群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또한 세종전군에게 충성하는 그의 의리는 신뢰할 수 있었지만, 보다 확실하게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6두품인 ‘노총각’ 문노를 윤궁에게 장가 들이는 일이었다. 윤궁은 과부였지만 황종의 딸로 진골의 신분이었다. 무엇보다 문노와 윤궁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궁은 몇가지 ‘의롭지 못한’ 것으로 고

심하면서 심경을 비보랑에게 토로하였고 비보는 그 내용을 문노에게 전했다. 비보랑으로 부터 전갈을 받은 문노는 윤궁의 말이 옳다면 그 다섯가지의 의롭지 못한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후 ‘매과媒婆’인 미실과 세종전군의 주선으로 그들은 미실의 궁에서 맞선을 보았다. 화랑세기에 그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비보가 돌아와 공에게 말했다. 공이 말하기를 ‘낭주의 말이 옳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했다. 이 때에 진종眞宗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네 가지 의義의 문제도 사라졌다. 공이 장차 크게 기용되려하자 윤궁의 뜻이 자못 기울었다. 이에 공과 더불어 미실의 궁에서 서로 보았다. 공이 말하기를 “우리 낭주가 아니면 선모仙母는 없으니, 내가 국선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했다. 그러자 윤궁이 말하기를 “내가 군君을 그리워한 지 오래되어 창자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비록 골골을 더럽힌다고 해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선모의 귀함입니까?” 했다. 공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에게 국선이 영예롭다고 하나, 나는 스스로 선모의 영예를 가집니다” 했다. 윤궁은 이에 공에게 몸을 허락하여 3자 3녀를 낳았다. 대강大剛 충강充剛 금강金剛이라 했다.]

많은 풍월주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취임

했는데, 문노는 41세에 취임했다. 그리고 풍월주의 부인을 화주라고 칭하는데 문노의 부인 윤궁은 선모로 불렸다. 이렇게 사도태후와 미실은 ‘황음무도’한 진지왕을 폐위할때 문노로 하여금 화랑도의 수장이 되어 군권을 쥔 노리부를 따르게하여 거사를 성공하였다. 노리부는 상대등이 되었고 문노는 582년까지 8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제26대 왕으로 진평왕이 12세에 즉위하였다(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그의 출생연도가 없는데 화랑세기에는 567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미실이 늙어서 왕후가 되지는 못했지만 진평왕을 색공으로 모시면서 그녀는 진흥왕과 동륜태자 그리고 진지왕에게도 색공을 했기에 할아버지로 부터 삼대왕에 걸쳐 색공을 하였다. 신라는 법흥왕대 부터 불교를 숭상하여 진평왕이 태어나면서 석가모니의 가족이름을 그대로 지었다. 진평왕은 백정으로 석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마야, 그리고 동생들은 석가의 삼촌들인 백반과 국반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 지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신라에서는 석가가 태어나지 않았다. 진평왕은 다만 딸 둘(셋 또는 넷)만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2018 A+ Summer Program

July Session: July 2 – July 23, no class on July 4
August Session: July 30– August 17

SAT Test Prep

NEW

Summer SAT Test Prep: 점수를 최대 250 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9-11학년 학생 대상: SummerSAT Test Prep

SAT 시험 예상 일시			
2018		2019	
August 25	November 3	March 9	June 1
October 6	December 1	May 4	

ASC A +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온라인 및 빠른 적응이 가능한 SAT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모든 수업 자료는 ASC 포털에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ASC A + 프로그램 고유의 수업은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분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A + SAT 학생들은 빠른 성적향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 약점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 온라인 및 빠른 적응이 가능한 실전 테스트.
- 개인 맞춤형 테스트 전략 및 기술 개발.
- 실전과 동일한 시간과 내용의 테스트를 통한 진단.
- 혁신적인 학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계획.
- 최고 점수 향상을 위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Ivy League STEM Training

NEW

• Mathematics • Science

9-11학년 학생 대상: Summer STEM Training

A + 프로그램은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Ivy League STEM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Ivy League 코치의 STEM 과목에서 고급 교육을 받게되며 Ivy League에 적합한 대학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STEM 과정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공됩니다. 각 수업은 Ivy League 강사 및 콘텐츠 전문가가 진행하며, 모든 수업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Ivy League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 Mathematics:**
- Algebra I and II
 - Trigonometry
 - AP Calculus
 - AP Statistics
 - Geometry
 - Pre-calculus
 - AP Calculus BC

Science (all at the AP level): • Biology • Chemistry • Physic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MATICS



Locations & How to Apply

50 Sewall Ave.,
Brookline, MA 02446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Contact us at 617-730-3705 or 617-338-5288, or email to aplusinfo@ascenglish.com

Website: aplusprogram.com

Facebook: [@aplusprogram](https://www.facebook.com/aplusprogra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2) -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방법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한국의 비거주자)의 한국에 있는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1.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세법은 비거주자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①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종합과세)와 ②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분리과세)로 나눠 과세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①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②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반면, ‘분리과세’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국내 원천소득별(예를 들면, 이자, 배당, 로열티, ... 등등)로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

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예를 들면, 은행이자자의 경우 은행이 이자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조세조약이나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마무리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는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된다. 이 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한국의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는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즉,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수입과 간주임대료

총임대소득에는 매월 받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된다.

‘간주임대료’란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간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아래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 A와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는 임대사업자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A의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B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A와 B간에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B의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적수 - 토지를 제외한 건설비상당액적수) × 1/365 × 이자율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입}

위 간주임대료의 기본 논리는 B가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은행에 예금했다면, 적어도 은행이자율만큼의 소득은 얻었을 것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B가 임대보증금을 통해 최소한 은행이자율만큼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임대수입에 포함될 간주임대료는 없다.

필요경비와 경비율

필요경비란 영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상적이고 필연적인 비용(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이자, 각종 공과금, 세금, 각종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미국의 Schedule E와 동일한 개념임).

이러한 필요경비(비용)는 원칙적으로 실

제장부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장부가 없는 경우 수입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데 이를 ‘경비율’이라 하며, 이러한 경비율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벌칙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resident alien(영주권자,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충족한 자)은 미국의 세금신고시 한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세금신고시 납세자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을 ‘Schedule E’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 때 한국의 세법에 의해 기록된 임대수입 및 관련비용은 미국의 세법에 맞게 조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세법에 의해 소득에 포함된 간주임대료는 미국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며, 반대로 한국의 세법에서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선수임대료는 미국의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감가상각비의 경우도 미국의 세법에 맞게 수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또는 납부할 세금)은 미국세금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된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휴법인

호연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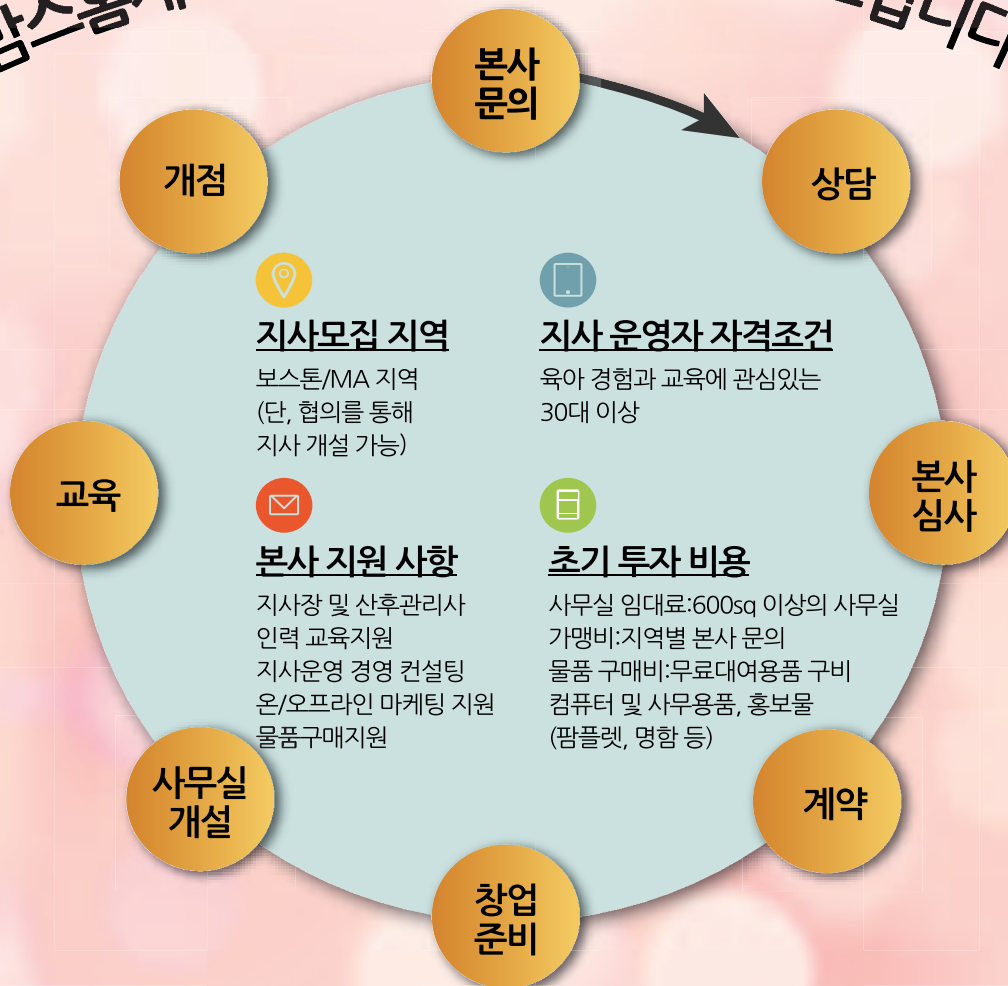
산 / 후 / 조 / 리 맘스홈케어



HOME CARE 주정부 승인업체
License #HP0252200
Child Care Tax Benefits
정식보험 가입(200만불)
산후조리사 Certification 발급
www.momshomecareusa.com

Boston MA지역 지사모집

미 동부 최초 산후조리 전문회사
맘스홈케어에서 함께 할 지사장님을 모십니다.



소자본 고소득 유망직종

맘스홈케어가 **창업 컨설팅** 해 드립니다!

회사소개



산후관리 서비스



NJ 본사

문의 **551.999.2222**

www.momshomecareusa.com
345 Broad Ave. Leonia, NJ 07605

NY지점 718.460.0100

38-33 150th St, 1Fl. Flushing, NY 113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37)

미국에서 4월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이민 생활에서 모든 재정상식을 이해하고 생활에 반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식투자, 채권과 이자율 관계, 복리계산, 신용카드 이자율, 주택융자금, 학자금 투자, 은퇴 투자,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상식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재정적으로 성공하기에 필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 저축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은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0,000 투자가 \$400,000으로 네 (4) 배 이상으로 불어난 숫자입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할 때 유망한 종목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투자하는 시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100에서 \$100을 더 저축하면 100% 상승입니다. 어떤 뛰어난 투자

방법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저축이 투자의 첫걸음이고 부를 축적하는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투자 보장

투자해서 손실을 경험한 사람,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 은퇴한 사람, 등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는 원금을 보장 (Guarantee)하면서 수익이 난다는 투자종목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보장' 한다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종목이 있다고 말하면 숨어있는 비용이 매우 비싼 종목임을 알아야 합니다.

* 투자 경비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금융상품 파는 사람, 주식브러커, 재정설계사, 대부분이 숨어있는 경비를 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면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확인한

후 삽니다. 그런데 평생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할 때는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질문을 꺼내는 것조차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시간과 끈기

도박이나 주식 대박은 단기간에 투자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장기간에 투자 돈이 꾸준히 불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입니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합니다. 수익률 10%란 투자 돈이 7.2년마다 두 배로 불어납니다. 10만 불 투자는 7.2년 후 20만 불, 또 7.2년 후는 40만 불, 또 7.2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이런 투자 복리 (Compound Interest)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는 주식 투자의 가장 치명적입니다. 조

급한 마음은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Simple) 투자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이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연준에서 발표되는 여러 경제통계 등을 이해한 다음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상품이나 어뉴이티와 같은 투자상품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금융상품을 팔면서 높은 수수료 (Commission)를 받는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4월을 재정교육에 관심을 두는 달 (Financial Literacy Month)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재정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투자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투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스페셜]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별칭 때문에 순수예술가들만 O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께서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 보아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수 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가로서는 H-1B와 같은 취업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건축 보조사 (Architectural Drafter)로 H-1B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H-1B는 최근 수 년간 추첨을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전문직종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H-1B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O비자는 분명 기회입니다. 건축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건축 디자이너 (Architectural Designer)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로 O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건축의 “예술” 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 O비자에 적합한 직업이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에서 건축학 학사, 석사를 가진 분들이 “건축 디자이너”로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예는 각종 디자이너분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디자이너, 비주얼 아티스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UI/UX 디자이너 등등 각종 디자인 관련 전공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디자이너나 타투이스트 등도 뛰어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O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 관련 부문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O-1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충분히 창의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예는 요리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입니다. 최근 요리사라는 직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훌륭한 요리학교들이 많이 있고 요리 산업의 규모도 매우 큼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요리사들도 많이 있고 미국에 있는 요리 학교를 방문해보면 한국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맛의 예술가”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요리사들의 O비자 케이스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들에서 저희는 요리사들의 요리에 대한 예술적 접근, 음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리법 개발에 있어 예술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O비자는 운동선수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O비자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바디빌딩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도 O비자의 대상이 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를 하곤 합니다.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수구,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들도 O비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바디빌딩의 경우,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빌더가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O비자는 매우 적합한 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운동 선수였다가 현재는 코치나 감독직으로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O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곤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전직 싱크로나이즈 선수로 현재 코치로 활동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코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싱크로나이즈 안무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안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변호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창의력입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할지라도 이민법에 대해 잘 알고 케이스를 창의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O비자나 여타 다른 비자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송동동
종 합법

고 객신뢰하

법 룰 브

기 업

국 제 법 | 금 융 법 |
부 동 산 | 상 법 및 M
임 대 임 . 임 차 인 관 계 법

개 인

가 정 법 | 노 동 및 고 용
세 금 . 상 속 . 유 언 |
지 적 재 산 권 | 티 켓 .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융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1.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 수학,역사,과학,외국어
경제,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4월 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4/16(월)~4/26(토):6일

1.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2. SATII Subject Test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2018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Ste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